남한강 자전거길 – 양수리(북한강 철교)

남한강 자전거길

1,692km의 아름다운 자전거길이 있는 나라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어디를 가도
상쾌한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나라

서울 한강과 여주 이포보를 연결하는 27km의 남한강 자전거길

가슴에서 가슴으로 흐른다

Weekly 공감

2011.11.02 NO.132
gonggam.korea.kr

따뜻한 공생발전 대한민국이 웃는다 P25~43

홍수 고통 태국 외무장관이 이포보를 찾은 까닭은 P20~21
도서관에서 책만 본다고? 디지털 옷 입은 국립중앙도서관 P44~45

진정한 공생발전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본래 공생발전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강자는 '공생'이 아니라 이미 '독생(독자생존)'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생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회·정치·경제적 강자가 자신을 양보하고 버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스스로가 과연 그 방향으로 움직이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래서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공생발전의 전부가 아니다. 지금 노동자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세계적 현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이들의 재취업이 어렵다면, 이들에 대한 정부 나름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정부는 한·미FTA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데, 한·미FTA가 이런 한국적 노동문제를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다. 신자유주의 아래 공생발전을 함께 추진하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딜레마는 비단 현 정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런 딜레마는 상존했다.

이런 모순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신자유주의 위주의 정책을 편다면, 대다수 국민은 '공생발전'이 자칫 하나의 슬로건에 불과한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공생발전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넘어 모든 국민에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때로 사회적·경제적 기득권층을 설득하고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모습에서 국민들은 정책의 진정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국가가 때로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기득권층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또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과감히 인정하는 모습 역시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정치권에 불고 있는 안철수 현상도 따지고 보면 공평하지 못한, 그래서 약자들만 손해 보는 사회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자칫 기성 정치권이 공멸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문제에 더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실정을 감안하여 50대 이상 베이비부머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이들의 경우 사회·경제적 상황이 바뀌어 자신들의 경력을 마땅히 활용할 곳이 없지만, 아직도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들의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들은 조만간 사회·경제적 약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계층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차원의 정책 없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한 정책에만 몰두한다면 공생발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어젠다를 국민들이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사라질 수 있다. G

Contents

NO. 132 2011.11.02 통권 23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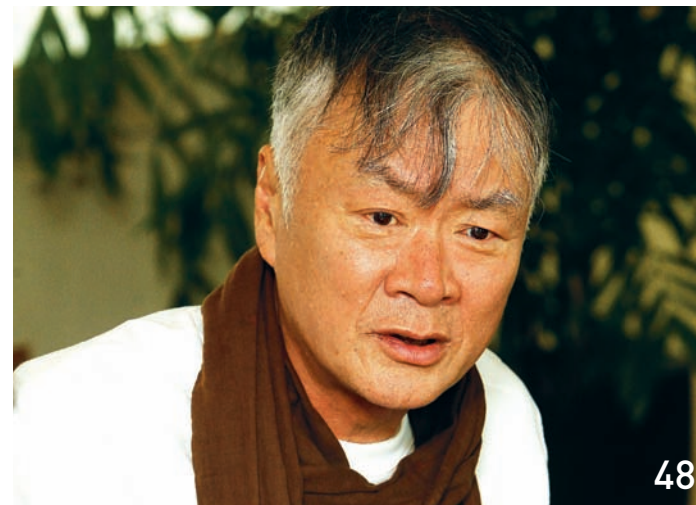
기획특집

동반성장·나눔 확산 사회가 밝아집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8·15 경축사에서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응해 '다 함께 잘사는 더 큰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국정철학으로 공생발전을 한발 앞서 제시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빈부격차와 실업률 가중 우려가 스멀스멀 자라고 있는 요즈음 양극화를 극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길이 공생발전입니다. 학력차별의 장벽을 철폐하고, 동반성장으로 기회를 고루 나누며, 공동체를 살찌우는 사회적기업을 키우고, 기부와 나눔으로 소외의 그늘을 없애는 것, 이것이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공생발전의 단면들입니다.

01 Reader & Leader | 진정한 공생발전
26 왜 이 시점에 공생발전인가 | 경주 최부자집의 '이웃 사랑' 본받자
28 학력차별 철폐-월테크놀러지 | "오직 실력뿐"… 편견없는 채용·정당한 보상
30 상생경영-포스코 | 협력사 30곳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
32 사회적기업-다솜이재단 | 무료 간병 서비스 하다 '간병사업' 전문화
34 기부문화 확산-행복나눔 N캠페인 | "기부하실래요? N마크 상품 구입하세요"
36 다문화가정 지원-한국농어촌공사 | 결혼이주여성 '친정 나들이' 꿈 주렁주렁
38 1억 이상 개인기부-아너소사이어티 | 그들이 있어 대한민국이 행복하다
40 해외 사례 | 나눔과 공생, 선진국들의 '공통분모'
42 전문가 쓴소리 | "구호에 그치지 않게 주기적 실적평가를"

표지 이야기 | 공생발전은 '다 함께 잘사는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만드는 기부 문화인 '행복나눔 N캠페인'은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공생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진은 행복나눔 N캠페인의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걸그룹 달샤벳. 사진·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11.02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04 공감 라운지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에 초대합니다
06 한·미FTA | 소상공인 "우리도 손해?"… "피해 매우 제한적"
08 한·미FTA |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골목상권 자생력 높이는 데 정책 집중"
10 심층분석 | 2012 예산안 분야별 점검-복지
12 이슈 | 한국 기업환경 세계 8위로 수직상승
14 포커스 | 학원서 보충수업비·차량비 못 걷는다
16 이슈 현장 | 이명박 대통령 "숙련된 기능인이 미래의 주역"
18 4대강 새물결 | UNEP "4대강살리기는 강 복원 통한 녹색성장"
20 4대강 새물결 | 이포보에 간 태국 외무장관 "한국의 홍수대비 기술·경험 배우고 가겠다"
22 세계한민족축전 | 세종대왕도 만나고, DMZ도 가보고
44 공감 포커스 | 책만 읽는 도서관? 디지털 옷을 입다
46 공감현장 | 서울에서 제주까지… 한국의 情 새록새록
48 공감 이사람 | 4년 만에 역사 소재 소설 〈흑산〉 내놓은 소설가 김훈 "黑山은 다윈의 새가 가야 할 시공 너머 섬"
50 반갑습니다 | 여심 흔드는 '연하남' 엔터테이너 지현우 연기·노래·예능… "못하는 게 뭐니?"
52 공감 문화 |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스크린셀러' 돌풍
54 스포츠 | '싸움닭' 변신 기성용 "물이 올랐다"
56 역사를 알면 영화가 재미있다 | 조선 후기 배경 사극 스릴러 〈혈의 누〉 닫힌 공간 섬에서 섬뜩한 본능을 보다
58 역사인물 읽기 | 왕을 얕잡아 본 '왕의 사돈'
59 디딤툰 | 글로벌 에티켓 59 잡지 마세요
60 건강정보 | 임플란트 믿고 방치하면… 잇몸 상해요!
61 공감 카툰 | 최고의 사윗감
62 알아두세요 | 겨울철 실내를 촉촉히… '숯·어항의 귀환'
63 문화공감 | '지구 온난화'의 경고, 공익광고로 말한다
64 소통칼럼 | 서울 막걸리, 시골 막걸리

Lounge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1월 17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국민과 친근한 국회를 기대합니다

131호에서는 '프로젝트P'로 새로워진 국회의사당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국 여행을 갔을 때 코스에 웨스트민스터 궁전이 들어 있어서 들렀었는데 나중에 그곳이 국회의사당인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딱딱하고 삭막하게만 느껴지던 곳이 그곳에선 굉장히 친근해 보였으니까요. 이제 우리 국회의사당도 새로운 프로젝트로 아름답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기쁩니다. 앞으로는 국민과 좀 더 가까워지는 국회의사당이 되길 희망합니다. **임영춘 (광주시 북구 운암1동)**

잃어버린 역사 되찾았다

지난주에 부모님과 함께 오대산을 다녀왔는데, 131호 '조선왕실의궤 반환' 기사를 읽고 나서 오대산이 그렇게 역사적인 산이고, 상당히 유서가 깊은 문화재가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90여 년 만에 일본에서 반환된 것인 만큼 범국가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미래에는 이와 같은 과거의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역사를 되찾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김용기 (서울시 강동구 천호2동)**

순천갈대밭 '대리 여행' 즐거워

저는 〈위클리 공감〉을 복지시설 내 중증장애어르신들과 함께 읽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지내는 어르신들께는 '공감여행'을 빠뜨리지 않고 읽어드립니다. 131호에 소개된 순천갈대밭의 기사를 읽으며 살랑살랑 갈대의 손짓이 정말 보이는 듯 신이 난 어르신들 덕분에 저도 즐겁게 여행을 함께했네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 멋진 풍광을 브로마이드처럼 책에 삽입했으면 합니다. **김종신 (경남 산청군 산청읍)**

한·미FTA 내용 한눈에 파악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일본의 기술경쟁력 사이에서 고전하는 우리 제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한·미FTA에 대한 미 의회의 비준 소식이 반가웠습니다. 한·미FTA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를 다양한 산업분야와 소비자의 입장까지 두루 소개해 주셔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FTA가 한결 쉽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걱정이 많은 농·수·축산업 분야의 피해와 지원 대책, 칠레와의 전례를 읽으면서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을 받아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면 더욱 의미 있는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황경호 (전남 목포시 옥암동)**

"FTA의 각론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송윤섭 (대학생·서울시 관악구 인헌동)

일주일에 두 번은 학교도서관을 찾는다는 송씨가 도서관에 도착해 가장 먼저 집는 책은 〈위클리 공감〉이다. 많은 잡지 중에서도 유독 〈위클리 공감〉에 눈길이 가는 이유에 대해 송씨는 "정부의 정책이나 입장에 대해 공감만큼 상세히 소개하는 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31호 〈위클리 공감〉을 본 소감은?

"전공이 무역학이라 FTA에 관심이 많습니다. 신문에 FTA 관련 기사가 나오면 빠놓지 않고 읽어보는 편이에요. FTA가 수업시간에 소재로 자주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FTA를 다룬 신문기사는 대부분 총론 위주 서술이라 아쉬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FTA 기획특집은 지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FTA 발효 이후 어떤 산업이 얼마나 수혜를 보는지, 피해업종에 대한 정부의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FTA의 '각론'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대학에 FTA 관련 강의가 있다는 것 역시 새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관심있게 본 기사는?

"김동철 민주당 의원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FTA의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어떻게' FTA를 이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으니까요. 김동철 의원의 인터뷰를 읽고, FTA는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위클리 공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문화와 스포츠 기사가 더 많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인물 인터뷰 기사도 많아졌으면 하고요. 상대적으로 심층분석 기사의 비중이 높아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기사는 좀 적은 것 같아요. 또 '4대강'이나 'FTA'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5대 5 비중으로 다뤘으면 합니다. 공감만 읽고도 이슈의 A to Z를 다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글·박소영 기자

알 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에 초대합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과 이웃주민의 문화적 이질감과 경계심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자는 취지로 오는 11월 5일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플라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2011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한다. 통일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팔도의 비빔밥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북한의 음식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어울림노래자랑, 북한전통예술공연 등의 문화행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된다. 귀순가수 김혜영의 진행으로 윙크와 김혜연 등 인기가수의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소정의 기념품과 점심식사가 제공되며 행운권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증정한다.

공연 일시 | 11월 5일(토) 오전 11시~오후 5시
공연 장소 |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플라자(여의나루역)
공연 내용 | **화합 한마당** 팔도 어울림 비빔밥&나눔행사, 화합의 손도장, 북한음식 문화체험, 팔도윷놀이, 북한 악기 체험 등
교류 한마당 어울림 노래자랑, 북한전통예술공연, 문화공연, 지자체 · NGO · 사회적기업 홍보부스 등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www.dongposarang.or.kr ☎ 02-3215-5788

노사가 만드는 아름다운 우리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고용노동부는 노사화합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1 노사 브라보 에피소드 공모전'을 개최한다. 노사화합 성공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공모전은 노사가 함께 일하며 생긴 상생 협력 사례, 공정하고 역동적인 일터혁신으로 더 좋아진 우리 회사 등의 에피소드를 수기 형식으로 응모하면 된다. 출품 작품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팀 구성원의 수 역시 제한이 없다. 수상자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공모전 홈페이지에서는 자전거와 간식, 문화상품권 등의 경품을 받을 수 있는 댓글달기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응모 기간 | 11월 23일까지
참가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 내용 | 일터에서 생긴 다양하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노사가 함께 일하며 생긴 상생 협력 사례, 공정하고 역동적인 일터혁신으로 더 좋아진 우리 회사 자랑, 한마음으로 더하고 나누는 노사의 감동 스토리 등)를 수기 형식으로 제출
참가 방법 | 노사브라보 홈페이지(www.nosabravo.or.kr)에서 온라인 접수
시상 내역 | 대상 1점 장관 표창 및 상금 2백만원 등 총 10점 4백40만원 시상
고용노동부 www.nosabravo.or.kr ☎ 02-320-8825

공감퍼즐

		1			
	2		3		
4			5		
		6			
7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1월 16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2. 학력도 적어넣고 경력도 써넣고…. 취업할 때 꼭 필요한 것이죠.
4. 서로 도우며 함께 사는 것. "OO발전으로 함께 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듭니다."
5. 발뒤꿈치를 든 발. "그는 OOO을 하고 손을 뻗어 선반 위의 낡은 상자를 꺼냈다."
6. 쌍으로 된 생선의 알상자. 또는 알상자를 세는 단위. 심마니들의 은어로, '땔나무' 또는 '생나무'를 이르는 말.
7. 몸을 탄환 삼아 적진에 뛰어들어 벌이는 전투.

세 로
1. 살아 움직이는 힘. "한·미FTA는 양국 경제에 큰 OO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
2. '이승'을 달리 이르는 말.
3. 마룻대에서 도리 또는 보에 걸쳐 지른 통나무.
4. 공적인 재원(財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
6. "가슴에서 가슴으로~ 4대강 새물결 OOO길."

〈Weekly 공감〉 130호(10월 19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비준 3 주효 4 소크라테스 6 가리 7 이포보
세로 1 비로소 2 발효 3 주스 5 테두리 6 가보

〈Weekly 공감〉 130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영언 · 울산시 중구 우정동
고찬호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신민경 · 인천시 중구 운서동
안지윤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정이름 · 전남 여수시 여서동

"우리도 손해?"… "피해 매우 제한적"

"대자본 밀려온다" 불안감… 설사 피해 있어도 제도적 안전판 있어

한·미FTA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걱정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한·미FTA에 대해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갈등은 피해야 한다. 그래야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의 위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폐업하는 사업장도 늘고, 폐업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빠듯하다는 것이다. 경제규모에 비해 자영업의 비율이 높은 데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와중에 걱정이 하나 더 늘었다. 한·미FTA가 그것이다.

소상공인들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대자본들이 한국에 밀려들어 올 것이고, 그 결과 자신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을 것이라고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걱정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 한·미FTA와 소상공인은 별 관계가 없는 데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로 자영업자 다 죽는다?
국내 유통업 1996년 완전개방… 영향력 적어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 자본이 대거 밀려들어 온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경쟁하는 것도 힘에 겨운데 미국 업체까지 가세하면 버티기 힘들 것이란 우려다.

하지만 한·미FTA와 유통업 개방은 별 관계가 없다. 국내 유통업은 1996년 이후 전면 개방됐기 때문이다. 한·미FTA가 아니라도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미FTA가 발효돼도 유통업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점포의 시설현대화 사업인 나들가게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월에 외국계 기업의 점포수 및 매장면적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철폐했다. 2003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도하개발어젠다(DDA) 양허안 제출 시 백화점과 쇼핑센터를 추가로 개방했다.

한·미FTA의 유통업 개방은 WTO 및 DDA 양허안 수준으로 맺어졌다. 미국의 대형자본이 미용업이나 세탁업 등 영세한 골목상권에 대규모로 진출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유통·상생법이 자동으로 무력화?
양국 협의점 못 찾으면 법정서 법개정 판가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는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유통법에 따르면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는 SSM 등 대규모점포가 입점할 수 없다. 상생법은 대기업이 신규사업에 진출했을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주던 유통법과 상생법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할 것이란 점이다. 한·미FTA는 국내법과 협상 내용이 상충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사업 진출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한·미FTA와 유통·상생법은 상충되고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동으로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국내법 규정을 바꾸려면 미국 측이 문제를 제기해 우리 측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우리 측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할 수 있다. 양측이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 국내법 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한·미FTA와 상충되는 규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투자자도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한·미FTA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 유통시장은 이미 전면 개방돼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관세인하로 인한 식재료가격 인하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 등 이점이 있다. 사진은 소상공인들이 몰려 있는 서울 명동 상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완대책이 전무?
무역조정지원제도로 직접적인 피해 보전 가능

한·미FTA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에 피해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무역조정지원제도가 그것이다. 한·미FTA 발효 후 미국산 제품의 수입이 증가해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20퍼센트 이상 감소할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를 만회할 수 있다.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경영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체가 지원 대상이다.

한·미FTA와 별도로 정부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노후 점포를 현대화한 '나들가게' 지원,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목적자금 지원, 각종 교육과 컨설팅 지원, 서민금융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예산은 지난해 5천6백16억원에서 올해 7천1백57억원, 내년 7천6백4억원으로 매년 불어나고 있다.

한·미FTA로 소상공인이 얻는 게 없다?
식자재 가격 하락 등 다양한 기회 가능성 있어

한·미FTA는 소상공인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식자재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관세가 철폐되는 만큼 가격을 내릴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삼겹살의 경우 현재 부과되고 있는 22.5퍼센트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현재 관세가 36퍼센트인 치즈 역시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한·미FTA에 따른 경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미FTA로 우리 기업들의 미국 수출이 증가하는 등 경기가 상승세를 타면 고용과 소득이 늘고 그 결과 내수경기도 활성화된다. 내수가 호전되면 소상공인의 매출도 자연스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10개 국책연구기관들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GDP가 5.66퍼센트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G

글·변형주 기자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인터뷰

"골목상권 자생력 높이는 데 정책 집중"

한·미FTA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염려된다는 시각이 적잖다. 대기업과 달리 타격을 입을 우려가 커 대응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도 한·미FTA는 성장의 기회가 된다고 강조한다. 소상공인들에겐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어떤 경우에나 중요한 것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쟁력을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하여 많은 중소기업은 단일국가로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그동안 국내 대형마트 등과의 갈등 등으로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한·미FTA에 따른 불안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한·미FTA에 대한 업종 간의 '온도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미FTA가 모든 사업장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경쟁력 향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유리한 점이 있는 경우에도 경쟁력이 없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FTA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안이 적잖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십니까.

"소상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유통업의 경우 1996년 세계무역기구(WTO)와 다른 지역과 FTA 등을 거치며 이미 전면 개방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미FTA가 발효된다고 해도 추가적인 피해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녹록지는 않아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시장개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진입을 제한하는 유통·상생법을 차질없이 시행해 골목상권을 보호할 것입니다.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도 병행합니다.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경영혁신과 사업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영업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미FTA와 별도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자금,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늘려 소상공인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노후 점포의 시설 현대화 사업인 '나들가게'를 내년 말까지 1만 개로 확충합니다. 6곳의 중소유통물류센터도 새로 설립해 물류 인프라도 개선할 것입니다.

창업 지원도 중점 사업입니다. 유망업종에서 준비된 창업을 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자영업컨설팅, 소외 지역 무료 상담 지원, 유망 신사업 창업지원, 법률소송 무료지원, 상권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금지원과 교육 기회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 규모를 올해 4천억원에서 4천2백50억원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31만명에서 33만7천명으로 늘릴 것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육성 계획이 궁금합니다.

"내년도 전통시장 지원 예산은 2천89억원으로 올해보다 소폭 증액됐습니다. 지원 방향은 시설현대화사업과 시장경영혁신사업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특히 시장경영혁신사업에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등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은 전자상품권으로도 발행하고 편의성을 높이고 발행액도 늘릴 것입니다. 지자체와 매칭 투자를 통해 전통시장과 인근상권을 연계 개발하는 상권활성화사업도 추진합니다. 상인대학 등을 통해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아케이드(76개), 주차장(51개), 진입로(8개) 등 3백30개 전통시장의 쇼핑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소상공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카드수수료입니다. 대형업체와 비교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소상공인들의 주장처럼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협상력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대형가맹점인 골프장과 종합병원의 카드수수료율이 각각 1.5퍼센트인 데 비해 숙박업과 패션잡화는 3.29퍼센트, 3.21퍼센트로 갑절 이상입니다.

정부는 중소 카드가맹점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중소상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실태조사와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카드사와 가맹점단체의 협상을 통해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겠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가맹점은 카드사와 거래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이 대구 서남신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한·미FTA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섬유, 통신기기, 전자기계 등은 수혜가 예상되지만 의료기기, 일반기계, 화학 등 일부 업종의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업종에 대해 무역조정지원제도, 사업전환자금 및 컨설팅 등을 통해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요.

"중소기업이 대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마케팅과 유망상품 연구개발(R&D)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략상품에 대해서는 전시회와 시장개척단 파견을 확대하고 2년 한도에서 단기 R&D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인 경우 해외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한·미FTA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한·미FTA에 대비하기 위해선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자구 노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중소기업들은 한·미FTA로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을 위한 FTA활용교육, 각종 설명회, FTA포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FTA에 보다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G

글·변형주 기자

꼭 필요한 곳에 '맞춤형 복지' 온기 전달

올해보다 6.4퍼센트 증가한 92조원… 재정건전성 유지하며 고르게 복지 혜택

2012년 복지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6.4퍼센트 증가한 92조원 규모다. 복지예산은 매년 불어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복지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무한정 예산을 늘릴 수는 없다. 정부는 '맞춤형 복지' 전략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의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 복지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맞춤형 복지'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맞춤형 복지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복지 수혜 계층이 가장 원하는 바를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맞춤형 복지는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2012 복지예산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 수혜 대상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크게 확대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기본생활 보장과 자립 여건을 조성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완화해 더 많은 저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부유하면 소득수준이 낮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현재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백30퍼센트 이하다. 월 2백66만원 밑이어야 기초수급자가 된다. 2012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백85퍼센트인 월 3백79만원 이하로 넓혔다. 이에 따라 약 6만1천명이 추가로 기초수급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은 물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해설사, 자연환경지킴이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가 2만개 확충된다. 사진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취업한 '숲 생태 해설사'가 숲에 대해 설명을 하는 장면.

조선DB

일하며 목돈 마련 '희망키움통장' 확대

기초수급자의 건강도 좀 더 꼼꼼하게 챙긴다. 만 19~64세의 의료급여(기초수급자 등 소득이 낮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얘기다.

근로 욕구를 촉진해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과 근로소득장려금을 확대하는 것이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족 중 누구라도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마련하기 힘든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희망키움통장은 일종의 적금통장인데 3년 가입하면 불입액의 최대 6배를 돌려준다. 본인의 불입액에 근로소득의 일정부분을 근로소득장려금이란 이름으로 더해준다. 정부는 올해 1만5천 가구인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1만8천 가구로, 월 20만6천원이던 근로소득장려금은 25만9천원으로 확대해 기초수급자들의 자립 의지를 북돋운다는 계획이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예산

저소득층

6만1천명
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수급자 추가 지정

100%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

200리터
소년소녀가장 등에 난방유 지원

장애인

5,000명
미취학 장애아동에 대해 양육수당 지원 (비장애아는 만 36개월까지)

7천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운영

5만5천명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290명
통·번역사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배치

650명
전문상담인력 등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배치

20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표준화된 한국어교육 실시

농어업인

2,100명
농지연금 대상을 확대하여 노후생활 보장

61개 품목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을 확대하여 적극 피해보상

2,600억원
어려운 농가의 농지 매입을 통해 부채상환 등 지원

장병·전의경

21%
장병휴가비 대폭 현실화 기본급식비 확대

44만명
뇌수막염백신 등 신규 예방접종 확대

476억원
훈련소 위생여건 개선에 대폭 투자

자료 기획재정부

겨울철에는 난방유도 지급한다. 기초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가구, 한부모가구에 2백리터의 난방유를 제공해 유가상승에 따른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장애인의 경우엔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자를 5만명에서 5만5천명으로 늘려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가족들의 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일자리를 늘려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 일자리 수는 6천5백 개에서 7천 개로, 보수는 20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사회참여 자긍심 느끼게 노인일자리 확충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에게 제공하는 양육수당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생후 36개월까지만 지급한다. 이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생후 84개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20만 개에서 22만 개로, 2만 개 더 만든다. 문화해설사, 자연환경지킴이 등 소득은 물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해 보급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문화원에 어르신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 등 1만 개의 어르신시설엔 생활체육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요양보험의 수혜 대상은 넓혔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험적용 기준을 완화해 1만9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번역 지원사를 2백10명에서 2백82명으로 늘린다. 또 원활한 가족생활과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생활지원서비스도 확대한다. 가정을 방문해 자녀의 알림장을 챙기고 준비물을 돕는 등 작지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농어업인에겐 자립형 복지를 실시한다. 고령의 농업인들을 위해 농지연금을 확대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 금융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한다. 올해 5백명인 수급인원을 4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급하는 농어업 재해보험도 대상품목을 50개에서 61개로 확대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확충하기로 했다. 기본보상금은 4퍼센트, 1급 중상이자의 특별수당은 2배 인상한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훈중앙병원을 개원하고 현충원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G

글·변형주 기자

한국 기업환경 세계 8위로 수직상승

세계은행 올해 1백83개국 평가서 사상최초로 10위권에 진입

기업은 경제의 중심이다. 기업이 잘되면 경제가 활성화되기 마련이다. 소득과 고용이 늘고 복지가 개선된다.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포부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최근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8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무려 8단계나 순위가 올라갔다. 경제의 체력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의미다.

세계은행이 '2011년 기업환경(Doing Business)'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백83개의 평가 대상국 중 한국은 8위에 올랐다. 사상 최초의 10위권 진입이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07년만 해도 30위에 머물렀지만 4년 만에 무려 22단계나 뛰어올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전년에 비해 8단계나 도약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아시아에서 10위권에 든 나라는 3개국으로 1위인 싱가포르와 2위인 홍콩, 그리고 8위인 우리나라가 그들이다.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17위, 18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20위에 그쳤다. 중국은 91위였다.

세계은행은 특히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남달랐던 4개국을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영국과 마케도니아, 멕시코, 그리고 한국이다. 세계은행은 우리나라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창업절차 개선, 건축 인허가 간소화, 세금납부 간소화, 통관절차 개선, 투자자와 채권자 보호 등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세계은행은 분석했다.

창업 절차·비용 간소화 호평… 4년새 22단계 올라

이번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는 10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6개 부문에서 순위가 향상됐으며 2개 부문은 하락했다. 전체적으로 순위가 급상승했던 것은 규제완화의 공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완화는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이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해를 거듭할수록 개선되고 있다. 규제완화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다. 국제교역 부문에서는 통관 절차를 간소화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감소했다.

2011년 기업환경 상위 20개국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싱가포르	11	핀란드
2	홍콩	12	사우디아라비아
3	뉴질랜드	13	캐나다
4	미국	14	스웨덴
5	덴마크	15	호주
6	노르웨이	16	그루지야
7	영국	17	태국
8	한국	18	말레이시아
9	아이슬란드	19	독일
10	아일랜드	20	일본

순위가 가장 많이 뛰어오른 부문은 '창업'이었다. 60위에서 24위로 무려 36단계나 수직상승했다. 무엇보다 창업절차가 간소화된 점이 부각됐다. 창업절차가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됐고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먼저 최소자본금 제도를 철폐했다. 당장 자금이 부족해도 누구나 언제라도 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됐다.

재택창업 시스템도 주목받았다. 번거롭게 관련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접수해야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제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재택창업 시스템은 현재 16개 시중은행과 대법원,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법인등기 관련 기관이 온라인으로 연계돼 있다. 창업시간이 줄어든 것은 당연한 결과다. 등록세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세금납부 부문도 49위에서 38위로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먼저 연간 세금납부 횟수가 14회에서 12회로 줄었다. 지방세목 통합과 4대보험 통합징수를 통해서였다.

올해부터 정부는 16개이던 지방세목을 11개로 줄였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개별적으로 징수하던 4대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게 했다. 납부 횟수가 줄면서 세금 납부를 위한 필요한 시간도 2백50시간에서 2백25시간으로 줄었다. 그만큼 기업경영에 쏟을 시간이 풍부해졌다는 의미다.

국제교역도 호평을 받았다. 순위가 8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다.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특히 주목을 받았다. 물품신고,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기업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수출의 경우 컨테이너당 7백90달러였던 비용이 6백80달러로, 수입은 7백90달러에서 6백95달러로 줄었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업무가 진행돼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현재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등 8개국이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재산권등록·투자자보호는 70위권에 머물러

건축관련 인허가 분야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제도를 간소화해 건축 관련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다는 평가다. 지난해 13단계였던 절차가 12단계로 줄었고 소요시간은 3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짧아졌다. 특히 비용은 1인당 국민소득 대비 1백31.2퍼센트에서 79.5퍼센트로 크게 절감됐다. 하지만 이 부문 순위는 22위에서 26위로 오히려 하락했다. 다른 나라의 제도개선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재산권등록과 투자자보호는 70위권에 머물렀다. 재산권등록 부문은 부동산등기 절차가 복잡하고 취득세 부담이 큰 것으로 평가되며 71위에 머물렀다. 투자자보호는 전년에 비해 세부 항목의 점수는 같았으나 순위는 5단계 하락한 79로 처졌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전기연결 부문은 11위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환경을 더욱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개혁을 시행하는 동시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현장친화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G

글·변형주 기자

일러스트 · 박상훈

학원서 보충수업비 · 차량비 못 걷는다

학원법 개정안 시행… 교재비 등 학원비 내역 담긴 영수증 발급 의무화

가정 경제에 부담을 주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원의 '투명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 26일부터 발효됐다. 학원법 개정안을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일부 개정안은 내년에 시행되지만 당장 이달부터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학원비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3남매를 둔 주부 윤경숙(47·서울 송파구 잠실동)씨는 영어, 수학 등 단과학원이며 종합학원, 음악학원 등 여러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봤지만 자세한 내역이 적힌 학원비 청구서나 영수증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다.

"영어학원 정도나 학원비와 교재비, 온라인교육비 등을 내역으로 보내오죠. 보통은 학원에 가서 카드 결제를 하거나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하고 나면 그뿐, 따로 영수증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윤씨는 또 "과외선생님은 경력을 보고 선택하지만, 학원의 경우는 원어민 영어선생님을 비롯해 학원 선생님들이 어떠한 분들인지도 잘 모른다"며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어 대학입시가 가까워져 오면 학원비가 얼마가 들든지 유명 입시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털어놓았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각종 학원정보 게재

윤씨와 같이 내역도 모른 채 학원비를 내고, 어떤 학원교사가 내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모르는 학부모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처럼 학부모들의 불안감 속에서 나날이 커지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0월 26일 발효됐다.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다만 일부 개정안의 경우 관련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내년 3월(일부는 시설 계약 기간 만료)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

학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적용 시기

구분	내용	적용 시기	구분	내용	적용 시기
교습비 징수 항목 축소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	**불인정**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입원료, 사용료, 건물임차료, 온라인콘텐츠료, 차량비, 논술지도비, 각 반별 정원유지비(10개 항목) **인정** 교재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6개 항목)	즉시	불법교습소 등에 신고포상금제 하향·상향 조정 및 신고센터 운영	신고포상금 액수 합리화하고 신고센터 운영키로	즉시(단, 신고센터 운영과 '교습비 등 초과징수' 단속은 4개월 유예)
교습자의 신고증명서 게시	지역교육청이 발급하는 교습소 등록증명서를 공개된 곳에 게시	즉시	입시컨설팅 학원 학원법 적용	각종 컨설팅 학원은 자유업에 속하나 초중고 대상 컨설팅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법 적용키로	2012년 3월부터
외국인 강사 채용 시 검증 강화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외에도 여권, 비자 및 외국인등록증 추가로 확인해 불법체류자 여부 검증	즉시	초중고생 대상 온라인교습 학원법 적용	온라인교습은 평생학습에 속하지만 초중고생 대상인 경우 학원법 적용	2012년 3월부터
교습소 운영과 교습비 등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교습소 명칭과 주소, 연락처, 교습 과정, 교습 과목, 교습비 등 공개	2012년 3월부터	백화점 등 부설 문화센터 학원법 적용	백화점문화센터와 언론사 부설 문화센터 등의 초중고생 대상 강의 혹은 프로그램에 대해 학원법 적용	2012년 3월부터(시설 사용 등에 대한 기존 계약이 3월 이후인 경우 계약 만료 후 적용)

이 개정안은 먼저 그동안 학원 등에서 학습자에게 교습비 외에 각종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차량비 등 기타경비 16종 가운데 6종(교재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만 한정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러한 내역이 담긴 영수증 발급도 의무화했다.

또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학원의 정보공개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해 내년 3월부터는 학부모들이 전국 1백78개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학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됐다. 학원의 정보공개 범위는 학원교습소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교습과정과 과목, 시간, 기간, 정원, 교습비, 강사 명단 등이다.

이와 함께 학원 등이 교육청 등록업체인지 알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교습자의 교육청 등록신고증명서를 게시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경우 법에서 정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외에도 여권·비자 및 외국인등록증도 추가로 확인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적절한 수준의 교습비를 산정할 '교습비등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된다. 개정안은 학부모·시민단체 및 학원·교습소 대표(동수 위원으로 구성), 공인회계사, 회계 관련 교수 및 연구원, 물가담당 공무원 등으로 7~11명의 위원(위원장 1명 포함)으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기능을 하도록 구체화했다.

아울러 불법교습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학원·교습소의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자 20만원(현행 50만원), 표시·게시한 교습비 등을 초과 징수한 자 및 교습시간 제한을 위반한 자 10만원(현행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허위 신고와 전문적인 '학파라치' 활동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는 월 교습비의 50퍼센트(5백만원 한도)로 상향조정해 개인과외 단속을 강화하고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다만 이들 신고포상금 4개 유형 중 '교습비 등 초과징수' 단속은 4개월 동안 유예된다.

외국인 강사는 외국인등록증 등 추가 확인

이번 학원법 개정으로 그동안 자유업에 속했던 입시컨설팅 학원과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됐던 온라인 교습도 학원법 적용을 받게 됐다. 백화점과 언론사 등 부설 문화센터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도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원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들 문화센터는 평생교육기관으로 분류되지만, 초중고생 대상 과정은 따로 분리해 지역 교육청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이들 업체의 경우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해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한창진 사무관은 "학원법 개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일부 분야에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문화센터들의 경우 기존의 시설·설비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기존 프로그램들을 유지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

글·박경아 기자

“숙련된 기능인이 미래의 주역”

이명박 대통령, 특성화고 교장 간담회… “학력우선시대는 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24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6백90여 개교 교장 및 취업부장, 그리고 주요 경제단체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21세기 핵심 자원은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과 창의적 인재”라며 “특화된 아이디어와 기술력, 도전정신을 가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그 주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두가 행복과 편리함을 주는 아이디어인 만큼 특허를 얻어 제품으로 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열린 ‘IP-MEISTER(마이스터) 아이디어 발표회’를 참관한 데 이어 ‘전국 특성화고 교장선생님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마이스터고 학생들, 교사·교장들과 대화를 나누고 격려했다. IP 마이스터 아이디어 발표회는 마이스터고 학생의 창의력을 계발하기 위해 특허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처음 개최했다. 학생의 아이디어가 변리사의 컨설팅을 거쳐 지적재산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행사다.

이 대통령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장과 취업부장, 그리고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제 학력의 시대는 지났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면 4년 후 입사하는 대학 동기생들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성화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늘어나는 데 대해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시키면 되겠느냐”면서 “취업반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야 제대로 취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월 24일 서초구 방배동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IP-MEISTER 아이디어 발표회에서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한 병역 혜택 건의가 나오자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아서 웬만하면 면제였지만, 지금은 몽땅 군대에 가도 모자란다”면서 “군대 수요는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어 “취업해서 병역이 연기되는 4년 동안 일하면 완전한 기술자가 되고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그때 군대 갔다 오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경제5단체와 ‘고졸자 채용 활성화’ 양해각서

이 대통령은 “서명하고 듣고 보이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 행사 치고 제대로 되는 걸 못 봤다”며 정부부처와 재계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고졸 취업자를 늘리기 위한 정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위원회를 만들어놓으면 대학교수만 가득 채워 탁상행정만 나온다”며 “고졸이면서 사회에 진출한 사람을 대통령 직속 위원으로 바꾸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교과부와 고용부·지경부 등은 대한상공회의소·경총·전경련·중기중앙회·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고졸자 채용 활성화 등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이 대통령은 제41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를 포함해 기술·기능인 2백5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교장선생님과 취업담당 교사 1천여 명,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이 모여 고졸 출신을 뽑겠다는 협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연이은 국제기능올림픽 우승을 축하하고, 숙련 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능인을 높이 대우해야 선진 일류국가”

이 대통령은 “숙련된 기능인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잘 알고 정부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광주에 갔더니 마이스터고 한 여학생이, 요즘은 대학 진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자신을 오히려 부러워한다고 말하더라”고 소개했다.

이어서 “대한민국이 여러분 같은 사람을 높이 대우하고 평가하는 나라가 되면 선진 일류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기업들도 더 폭넓게 숙련 기능인들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나 브라질 등 경제가 뜨는 신흥국가들이 아마 한국 기능인들을 위협할 것”이라며 “앞으로 갈수록 점점 1등 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지만 계속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를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

글·오동룡 기자

이명박 대통령 정책간담회 발언 요약

“기술 배우려는 사람에게 일자리 주고 농업·해양수산 분야도 인재 키워야”

오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교장선생님, 취업담당하는 지도교사님을 만나고 싶어 초청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업들이 취업에 대해 인식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고교 졸업생의 80퍼센트가 대학에 진학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기술을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가야 취직이 잘되고, 희망이 있고, 간부가 된다는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세계에서 연봉을 수백만 달러를 받는 축구선수들은 평균학력이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됩니다. 그들은 “왜 축구선수인 내가 대학 가는 데 시간을 허비해야 하느냐”고 합니다. 이청용 선수는 프로로 간다는 뜻을 품고 일찍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을 차 지금은 유럽리그에서 몇백만 달러를 받는 선수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숙련기술인이 되려면 일찌감치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가야 하는 겁니다. 나는 지방에 갈 때마다 꼭 마이스터고를 한 군데씩 들릅니다. 1백퍼센트 취직이 돼 있더군요. 결국 우수한 학생은 기업이 다 데려갑니다.

나는 농업도 대단히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농업도 앞으로 부가가치 높은 식품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사먹기 힘들 정도로 수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서 그런 훌륭한 농업인을 키워 농촌에 보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직업군이 2천2백 개였습니다. 지금은 2만~3만 개를 헤아립니다. 세분화된 직업에 맞춰 교육만 시키면 얼마든지 집중해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에서도 진학반도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취업반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갈 사람은 인문고에 들어가서 대학을 가고, 특성화고는 취업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와야 합니다.

나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여성들, 장애자들도 일할 수만 있으면 일자리를 주는 그런 복지가 훌륭한 복지 아니겠습니까. 퇴직하고도 자신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제2의 일자리가 있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한 것 이상으로 대우를 받게 하려고 합니다. 4년간 일한 고교 졸업생보다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의 대우가 더 높다면, 고교 졸업생들에게는 절망감을 안겨주는 겁니다.

내가 광주 마이스터고에 갔을 때입니다. 한 여학생은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친구들이 마이스터고를 진학한 저를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직업학교 갔다’며 기가 죽을 텐데, 학생들의 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이상 기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학력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능력의 시대, 경력의 시대입니다.

주한 외교사절들도 4대강에 관심

스티븐스 전 주한 美대사 자전거 주행 주한 외교사절 일행 카약 트래킹 체험

연두색 복장의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왼쪽)가 10월 18일 지인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남한강 자전거길을 달리고 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출국을 며칠 앞둔 지난 10월 18일 4대강 자전거길 남한강 팔당대교~양수리 구간에서 사이클링을 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오전 7시 대한사이클연맹 구자열 회장, 프로사이클 김동환 사장과 함께 하남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팔당대교를 거쳐 양수리역까지 갔다가 잠실 올림픽공원까지 달렸다. 스티븐스 대사는 "직접 4대강 자전거길을 이용해 보니 정말 좋더라"고 큰 관심을 표명했다.

한국에 부임한 이후 각종 자전거 관련 행사에 적극 참석하는 등 자전거 사이클링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티븐스 대사가 4대강 남한강 사업구간 자전거길을 직접 체험한 것은 처음. 스티븐스 대사는 "한국에 더 있을 수 있다면 4대강 자전거길 구간을 전부 돌아봤을 텐데"라고 여운을 남겼다고 프로사이클 김동환 사장은 전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특히 폐철도를 자전거길로 복원한 남한강 자전거길 폐철도 활용구간(팔당역~양근대교)에 대해 더 큰 관심을 표명했으며, 사이클링 도중 우연히 만난 양평군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10월 22일 출국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가 10월 22일 경기도 여주군 한강 이포보 등 4대강에서 'Sailing the Dream'이란 주제로 개최한 카약 트래킹 행사에 국내 카약 동호인은 물론, 10개국에서 온 30여 명의 주한 외교사절 등 1백여 명이 참가해 아름다운 우리 강의 가을정취를 만끽했다. 한강 이포보 및 영산강 승촌보 개방 행사장에서는 선착순 2백여 명에게 카약 강습 및 체험 행사가 무료로 진행됐다.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은 "유럽 선진국들은 강변 곳곳에 오토캠핑장과 자전거 도로, 카약 선착장 등 관광 인프라를 잘 조성하고 강을 적극적으로 관리·이용함으로써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강은 최고의 관광자원이다. 이제는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정비된 아름다운 우리 강과 수변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해 관광한국의 새로운 콘텐츠로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10월 22일 개방행사를 가진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야경. 대구시 달성군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4대강살리기는 강 복원 통한 녹색성장"

유엔환경계획 연례보고서에 소개… 40조원 경제적 효과 가져

4대강살리기 사업이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간하는 녹색경제보고서에 강 복원을 통한 녹색성장 사례로 소개됐다. UNEP가 주창한 '녹색경제 이니셔티브'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는 녹색경제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를 모색하고 있다.

한강 이포보 개방일인 10월 22일 한국관광공사가 개최한 카약 트레킹에 참가한 주한 외교사절들과 동호인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08년 이래 주창해 온 '녹색경제 이니셔티브(Green Economy Initiative)'에 따라 발간 중인 '녹색경제보고서' 중 '물' 챕터에서 한국의 4대강살리기 사업을 강 복원을 통한 녹색성장 사례로 소개했다.

물 챕터 최종본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8월 26일 막을 내린 '세계 물 주간(World Water Week)' 행사를 통해 발표됐다. 전체 보고서 발간은 2011년 11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4대강 경험을 물 부족 개도국과 공유를" 조언도

UNEP는 한국의 4대강살리기 사업을 호주의 '머레이 달링 유역사업'과 함께 물 관련 '도전(challenges)과 기회(opportunities)' 절에서 강 복원을 위한 정부 투자 사례로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4대강살리기 사업이 녹색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22조2천억원을 투자해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4대강살리기 사업이 ▲물 부족에 대비한 충분한 수자원 확보 ▲다각적인 홍수통제 역할 수행 ▲유역 생태계 복원 및 수질개선 ▲강 주변의 주요 지역 개발 ▲강 주변 문화·여가공간 개발 등의 목표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11일에 광주에서 열린 2011 도시환경협약(UEA) 광주정상회의 참석차 내한한 UNEP의 피터 길루스 국장은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한국이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재원을 활용해 물 부족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가와 4대강살리기 사업의 경험을 공유할 것"을 조언했다.

UNEP의 2011 녹색경제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의 길(Pathways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이란 부제를 달고 있다. 이러한 부제는 자연자본에 대한 투자(농업, 어업, 물, 숲)와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성 제고(재생가능 에너지, 제조업, 폐기물, 건물, 교통, 관광, 도시), 그리고 전 지구적인 녹색경제로의 전환 촉진 방안(모델링, 가능화조건, 재정) 등 녹색경제의 전반적인 주제가 망라되어 있다.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해외협력담당 임두리 사무관은 "현재 이들 중 '물' 챕터와 더불어 UEA 광주정상회의에서 발표된 '도시' 챕터가 최종본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전하며 "공개된 보고서들은 UNEP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글·박경아 기자

유엔환경계획 (UNEP) www.unep.org

※ 자세한 내용은 www.unep.org/greeneconomy에서 볼 수 있습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제공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고 있는 태국의 수라퐁 토위착차이쿤 외무장관 일행이 10월 27일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를 방문해 공도교 위를 걸으며 4대강살리기사업 현황을 둘러보고 있다.

"한국의 홍수대비 기술·경험 배우고 가겠다"

태국 외무장관, 입국 즉시 남한강 이포보로 직행… 소수력발전소 등 둘러봐

50년 만에 닥친 최악의 홍수로 국토의 70퍼센트가 물에 잠긴 태국의 어려움이 남의 일 같지 않다. 수라퐁 토위착차이쿤 태국 외무장관 일행이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길에 곧장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을 찾았다. 한국의 물 관리 기술과 경험이 축적된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다.

평일인데도 보를 구경하려는 관람객들로 붐비던 10월 27일 오후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에 있는 남한강 이포보의 공도교 위로 일단의 외국인 손님들이 들어섰다. 석달 동안 홍수 피해를 입고 있는 태국의 수라퐁 토위착차이쿤 외무장관 일행이었다.

서울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

토위착차이쿤 장관은 지난 10월 27·28일 서울에서 열린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수행원, 태국 방송사 제작진 등과 함께 이날 아침 6시반경 우리나라에 입국해 곧바로 이포보 현장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석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태국의 홍수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차오프라야 강의 범람으로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고 있는 태국에서는 10월 28일 현재 4백명 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다.

또 차오프라야 강이 흐르는 수도 방콕의 도시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경제손실 규모는 최대 5천억 바트, 우리 돈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는 지난해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발족한 국제회의. 메콩강 인근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 후발개도국 다섯 개 회원국과 한국이 외교장관회의를 신설해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포보 좌안에 도착해 소수력발전소부터 둘러보기 시작한 토위착차이쿤 장관 일행 18명은 차분하게 한국수자원공사 측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여기 이포보는 평소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홍수 시기에는 저수를 대량 방류해 드라마틱하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해외기획처의 정 찬 해외투자2팀장이 토이착차이쿤 장관에게 조감도를 곁들여 보의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 토이착차이쿤 장관과 일행은 시종일관 진지한 얼굴로 정 찬 팀장의 설명을 들었다.

태국, 50년 만의 홍수로 4백명 가까이 희생

토이착차이쿤 장관 곁에서 함께 설명을 듣고 있던 차이용 삿지파논 주한 태국대사는 "태국 국민들은 현재 차오프라야 강의 범람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곳에서 한국의 강 관리 기술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다.

토이착차이쿤 장관 일행은 이포보 위의 공도교를 걸으며 이곳저곳을 살폈다. 잠시 토이착차이쿤 장관의 발길이 머문 곳은 이포보 우안의 자연형 어도가 내려다보이는 지점이었다.

"저건 어떤 시설이냐"고 질문한 토이착차이쿤 장관은 "물고기가 보의 하류와 상류를 오갈 수 있는 어도"라는 한국수자원공사 측의 설명에 "그럼 (이 길에 대해) 물고기에게는 어떻게 가르치느냐"고 되물어 잠시 주변에 웃음이 번지기도 했다.

하지만 곧바로 일행은 다시 진지한 얼굴로 공도교를 건너 요트 모양의 카페테리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강변으로 내려가 수중정원과 잔디로 꾸민 자연형 호안으로 조성된 강변을 두루 살폈다.

토이착차이쿤 장관은 이곳에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잠시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태국은 한국과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한국 정부로부터 홍수대비 관련 기술과 경험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태국은 홍수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 홍수관리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토이착차이쿤 장관은 이날 오후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안건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제공

이포보의 가동보 수문 작동에 관심을 갖고 둘러보는 토위착차이쿤 장관과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오른쪽 끝).

"메콩강 유역은 세계적인 쌀 생산지입니다. 태국을 비롯해 메콩강 유역 국가들이 홍수 피해를 입게 되면 지역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식량안보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번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논의될 것입니다."

태국적십자사에 전달된 한국 정부의 지원금 20만 달러에 대해 사의를 표한 토이착차이쿤 장관은 "지금 태국은 기술이며 경험 모든 도움이 필요하다. 우방국으로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오늘 이곳에서 둘러본 한국의 홍수대비 시스템에 관해 태국 총리에게 전달하겠다"며 앞으로 한국과 홍수관리에 관한 협력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했다.

토이착차이쿤 장관과 함께 방한한 태국 TV CH3 등의 방송제작진 4명은 이포보에 남아 한국의 물 관리 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현장을 꼼꼼히 영상에 담았다.

한·태국 차오프라야 강 홍수방지대책 합의

정 찬 팀장은 "이번 홍수가 발생하기 전 한국수자원공사와 태국의 왕립관개청(RID)이 차오프라야 강의 홍수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공동조사(1년6개월간)와 종합계획수립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며 "이번 홍수의 위기를 넘기고 나면 RID와 합의 이행에 들어갈 것이다. 이번 태국 외무장관의 이포보 현장 방문으로 합의 이행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날 이포보 현장에서 토이착차이쿤 장관 일행을 직접 안내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국과 "앞으로 준설과 홍수대비,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여러 측면에서 태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G

글·박경아 기자

1 제21회 세계한민족축전에 참가한 재외동포들이 지난 10월 27일 '조선왕조 500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행사에 참가해 경복궁을 둘러보고 있다. 2 10월 28일, DMZ를 방문한 해외동포들이 경기도 파주의 제3땅굴을 방문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3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념촬영에 열중인 세계한민족축전 참가자들.

세종대왕도 만나고 DMZ도 가보고

세계한민족축전에 참가한 재외동포 4백여명, 모국서 꿈같은 나들이

전세계 42개국에서 4백여 명의 동포가 참가한 '2011 세계한민족축전'이 11월 1일까지 6일간 서울·인천, 경주 일원에서 열렸다. 세계한민족축전은 88서울올림픽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1989년 시작돼 올해로 21회째로 지금까지 약 1만3천여 명의 재외동포가 모국을 방문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경제적인 이유로 모국방문이 어려운 우즈베키스탄 등 18개국의 19명을 특별초청했고, 입양아 5명에게도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했다.

"광화문광장에 세종대왕이 계시네?"

"와~! 광화문 현판 글씨가 한자로 바뀌었잖아!"

세계한민족축전 독일대표단 72명의 일원으로 한국을 찾은 최연원(74)씨와 민춘강(72)씨 부부는 지난 10월 27일 오후 서울테마문화탐방 '조선왕조 500년' 행사에 참가해 경복궁과 광화문광장에서 고국의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려는 듯 연신 셔터를 눌러댔다. 독일 마인츠시에서 45년간 거주해 온 최씨는 1966년 김포공항에서 독일 전세기에 몸을 싣고 독일로 건너간 파독 광부 초기 멤버다. 그는 그곳에서 역시 파독 간호사로 온 민씨를 만나 결혼했다.

독일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최연원씨는 "오늘날 젊은 세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기성세대의 눈물 겨운 땀방울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청년실업으로 힘들고 괴롭더라도 '꿈과 희망'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되새겨 주고 싶다"고 했다.

1977년 마지막 파독 광부로 독일 도르트문트에 정착한 김시균(64)씨는 "독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서울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 가슴이 빠근하다"면서 "외형적으로 한국이 발전했지만 시민의식만은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이 놀랍고 우려스럽다"면서 "GDP 3만 달러의 서독도 동·서독 통일 이후 20년간 통일비용을 부담하느라 무진 애를 먹었다"고 했다.

"서울의 발전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빠근하다"

그동안 세계한민족축전은 재외동포들에게 조국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한민족의 자긍심 고양과 해외 동포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개막 축사에서 "3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이겨낸 대한민국은 지금 FTA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넓은 경제영토를 갖게 됐다"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것은 세계 곳곳에서 피땀 흘려 큰 성취를 일군 재외동포 여러분의 공로"라고 치하했다.

특히 금년 행사부터는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니카라과, 이집트 등 그동안 참가하지 못한 국가의 교민들도 초청됐다. 세계한민족축전에 참가한 재외동포들은 6박7일 간 〈우생순〉 〈글러브〉 등 영화를 감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태권도와 택견 등 마샬아츠 공연을 관람했고, 인천의 차이나타운과 유람선에 승선하는 등 보람 있는 일정을 소화했다.

재외동포 참석자들은 또 DMZ를 방문해 제3땅굴, 도라전망대를 둘러보며 분단의 현장을 체험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지역의 석굴암, 불국사, 첨성대, 양동민속마을 등을 관광하는 '추억의 수학여행' 프로그램에도 참석했다. G

글·오동룡 기자

기 획 특 집

행복한 공생발전 대한민국 미래 연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8·15 경축사에서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응해 '다 함께 잘사는 더 큰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국정철학으로 공생발전을 한발 앞서 제시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빈부격차와 실업률 가중 우려가 스멀스멀 자라고 있는 요즈음 양극화를 극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길이 공생발전입니다. 학력차별의 장벽을 철폐하고, 동반성장으로 기회를 고루 나누며, 공동체를 살찌우는 사회적기업을 키우고, 기부와 나눔으로 소외의 그늘을 없애는 것, 이것이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공생발전의 단면들입니다.

26 왜 이 시점에 공생발전인가 28 학력차별 철폐
30 상생경영 32 사회적기업 34 기부문화 확산 36 다문화가정 지원
38 개인 기부 40 해외 사례 42 전문가 쓴소리

일러스트·이철원

경주 최부자집의 '이웃 사랑' 본받자

양극화 해소가 우리 사회의 화두… 자연생태계처럼 공존하는 사회 만들어야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국정운영 철학의 화두가 '공생발전'이다. 우리 사회에서 계층과 지역,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국제사회를 주도해 온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유럽형 복지사회가 양극화 위기 앞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데 따른 대안이 공생발전이다.

'부자 3대 못 간다'는 속담을 뛰어넘은 것으로 유명한 가문이 경주 교동의 최부자집이다. 3백여 년간 12대에 걸쳐 부를 유지해 온 최부자집의 '만석꾼 비결'은 바로 이웃과 함께하는 가훈의 실천이었다. '만석 이상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사방 1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하라' 등의 최부자집 가훈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지혜였다.

이렇게 후대까지 수긍할 수 있는 공생의 지혜를 전한 최부자집은 경주시 교동 69번지에 위치한 최씨 고택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1969년 화재로 사랑채·행랑·새사랑채 등이 소실됐으나 문간채·고방·안채 등과 쌀 8백 석을 보관할 수 있는 뒤주가 남아 전해진다.

사회갈등 봉합 선례로 나눔 실천 재조명

최부자집 뒤주만큼이나 마음 씀씀이가 넓은 부자는 또 있었다. 조선 정조 당시 제주 거상 김만덕 할머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조실부모한 김만덕 할머니는 역경을 딛고 제주도 최고의 부자가 됐으나 1795년 제주도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이 늘어나자 자신의 재산의 털어 제주도 백성 수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

교육과 문화사업에 헌신한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나 평생 10퍼센트 헌금을 실천한 '석유왕' 존 데이비슨 록펠러 부럽지 않은, 존경받는 부자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다. 나눔을 실천한 부자들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양극화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사회적 갈등 봉합을 위한 선례로 조명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세계가 놀랄 만한 저력을 과시하며 3년 만에 국민소득 2만 달러로 복귀했다. 하지만 빈부 격차가 커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청년 실업률 증가, 저출산 고령화 같은 과제들에다 늘어나는 국민의 복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커져 국가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국가와 개인이 함께 가는 새 발전체제 만들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다 함께 잘 사는 더 큰 대한민국'을 실천하기 위한 국정철학으로 '공생발전(Ecosystem Development)'을 제시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지구환경 보전과 경제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는 개발과 환경, 성장과 분배, 시장과 국가 같은, 그동안 서로 대립하던 가치를 하나의 가치로 통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명박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공생을 추구한 녹색성장'(2008년), '계층 간 공생을 위한 친서민 중도실용'(2009년),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이루자는 공정사회'(2010년) 같은 국정방향 역시 그 가치통합의 노력이었다.

조선DB

이웃 사랑의 본보기를 수백 년간 실천한 경주 최부자집. 국가 중요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분법적 접근의 한계 : 숨의 길

시장	vs	국가	개발	vs	환경	성장	vs	분배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개발론자		환경보존론자	성장 일변도		분배 일변도
승자독식, 빈부격차		복지 포퓰리즘, 재정건전성 악화	기후변화 환경파괴		미래먹거리 (성장동력) 창출 곤란	사회통합 약화 (trickle down effect 저하)		지속 가능하지 못함

개인 vs 국가	→	공동체의 역할 (개인과 사회)
대기업 vs 중소기업	→	동반성장 (협력과 경쟁)
성장 vs 복지	→	맞춤형 복지 (성장속의 복지)
개발 vs 환경	→	녹색성장 (환경의 성장동력화)

이 대통령은 올해 이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의 일관된 사회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밝힌 것이다. 새로운 시장경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공생발전은 우리 사회를 하나의 자연생태계와 같이 보는 견해를 바탕에 깔고 있다. 우리 사회도 자연생태계와 같이 서로 다른 계층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공존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는 것이 바로 공생발전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를 주도해 온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유럽형 복지사회는 양극화 위기 앞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여러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서민경제는 어렵고 청년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자연생태계와 달리 인간 사회의 시스템은 '무한경쟁'에서 이긴 자가 모두 가지는 '승자독식'을 시장경제의 질서로 용인해 왔기 때문이다.

대기업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실천에 속속 나서

우리에게 내재된 전통을 바탕으로 이 대통령이 되살려 낸 공생발전의 싹은 벌써 여기저기에서 돋아나고 있다. '스마트엔젤스코리아운동협의회'의 '사회공헌 파워지도자 양성 전문교육과정'이 한 예다.

민간이 주도하는 이 교육과정은 공생발전을 범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올 10월과 11월 두 달간 격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강의를 진행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은 일체의 강연료를 받지 않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한다.

공생발전 철학에 기반한 정부 정책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0월 2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을 보고했다. 앞서 10월 19일에는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등 6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신성장동력기획협의회'가 중소기업에 적합하고 글로벌 경쟁력도 갖는 '10개 생태계 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선정 발표했다.

대기업들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생발전기금 만들기 등에 나서고 있다. 창의와 경쟁을 보장하고 양적·질적 향상을 추구하며, 발전성과를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생발전을 위해 시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나선다면 양극화 극복의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G

글·박경아 기자

"오직 실력뿐"… 편견없는 채용·정당한 보상

전 직원 정규직·42퍼센트가 고졸… 직종·임금체계도 차별 안 둬

정부가 '학력차별 철폐'를 주요 공정테마로 내세우며 공생발전 현실화를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고졸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을 대폭 늘리는 추세다. 수원의 중소기업 윌테크놀러지는 창업 때부터 줄곧 고졸 직원을 차별 없이 채용함으로써 '학력차별 없는 열린 고용실천기업'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9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동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열었다. 공생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자리로 낙점된 이곳이 바로 '윌테크놀러지'다.

이 회사는 반도체 칩 검사장치인 '프로브 카드'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이 분야 선두주자인 일본 에이펙스사에 기술을 역수출할 만큼 실력이 우수한 기업이다. 현재 반도체 비메모리 관련 국내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 회사를 주목한 것은 '학력차별 없는 열린 고용실천기업'의 선두주자라는 점 때문이다. 윌테크놀러지의 회사비전은 '사람을 향하는 기업'이다. 이에 걸맞게 지난 2001년 창립 이후 '인간중심'의 윤리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다.

김용균(45) 대표는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중소기업에 들어간 뒤 일본으로 건너가 기술을 배웠고 회사가 상장될 때까지 큰 기여를 했지만 고졸이라는 이유로 승진은 차장급에서 멈췄다"며 "학력차별을 뛰어넘는 건 창업뿐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창업 후 "고졸 설움 후배에게 없다" 실천

이후 김 대표는 윌테크놀러지를 창립했고, 과거 학력차별 때문에 받았던 설움을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영방침을 세웠다.

김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고졸 출신도 실력과 인성이 훌륭하다면 학력에 연연하지 않고 채용했다. 현재 직원 2백30명 중 42퍼센트인 97명이 고졸이다. 특히 고졸 직원은 주로 단순 생산직이나 관리직에 채용되던 관행을 깨고 기술직까지 채용함으로써 학력의 벽을 과감히 무너뜨렸다.

현재 윌테크놀러지는 수원 지역의 특성화고교인 수원정보과학고, 한일전산여고, 삼일공고 등과 산학협력을 체결해 올 하반기 졸업예정자 10명이 채용 약정 후 현장 근무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2009년 29명을 채용한 이후 13명의 고졸 사원을 포함해 23명의 정규직 사원을 채용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윌테크놀러지는 근로자 대부분이 20대 중반~30대 초반인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손꼽힌다. 전문계 고교에서 기술을 배우고도 학벌 지상주의와 학력 인플레 홍수에 휩쓸려 취업이 되지 않아 대학을 도피처로 삼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윌테크놀러지가 산학협력과 인턴십 제도를 통해 전문계 고졸자들에게 취업의 물꼬를 터주고 있는 것이다.

입사 후 보수에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 연 매출 성장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학력·근속연수 등이 아닌 인사고과(실적·근평 등 종합) 결과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경력 4년차 고졸 사원의 대부분이 대졸 초임 연봉보다 높거나 비슷하고, 직업훈련 기회도 평등하게 주어진다. 대부분의 기업이 경영이념으로 '실적과 성과'를 강조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윌테크놀러지 김용균 대표(오른쪽 두번째)와 직원들. 김 대표는 창업 이후 꾸준히 고졸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학력차별의 벽을 허무는 데 힘쓰고 있다.

동아DB

"잠재력은 개인 삶의 원천이자 기업 경쟁력"

이 같은 인간경영은 회사의 매출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윌테크놀러지는 지난 2005년 1백4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미국에서 '아이폰' 출시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2006년에는 스마트폰 개발에 필수적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용 검사장비 개발에 착수, 삼성 스마트폰 성공과 더불어 소위 '대박'을 터트렸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에는 3백8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올해는 5백억원 매출에 상시근로자수 2백5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오직 기술력으로 자수성가한 김용균 대표의 노력이 가장 컸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잠재력은 개인 삶의 원천이며, 그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편견 없는 채용과 정당한 보상, 차별 없는 대우를 한 것이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다.

김 대표는 "중소기업은 학력이나 혈연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며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라면 끊임없이 도전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글·손수원 기자

김용균 윌테크놀러지 대표

"회사 발전시킬 인재평가에 학력은 중요치 않아"

고졸사원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프로브 카드는 기본적으로 섬세함과 차분함, 참을성과 끈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력 채용 시 이러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본다. 위의 사항에 부합해 채용되고 오랫동안 회사에 기여한 직원들 중 상당수가 고졸 출신이다.

우리 회사는 고졸채용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회사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차별 없이 채용한 것뿐이다. 회사발전을 위한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학력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력차별 철폐와 고졸자 채용에 있어 기업들이 망설이는 이유는.

대학 진학률이 높다보니 고졸 구직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대부분 대졸자가 하향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계고를 통해 인력을 수급하려 해도 대기업이 아닌 이상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채용을 하더라도 대부분 대학 진학을 고려하고 있어 장기근속이 어려운 점도 문제다. 장기근속이 우선되어야 안정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회사도 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엔 근무시간을 조정해주거나 학비지원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장에서 고졸 사원과 대졸 사원 간에 마찰 등은 없는지.

초기진입시점(초임)에만 학력에 따른 임금 차를 둘 뿐 이후부터는 철저한 성과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자연히 가진다. 따라서 현장에서 학력에 따른 임금, 승진 등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다. 누구나 노력하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이 고졸 사원 채용을 늘리면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화될 것이란 추측이 있는데.

분명 중소기업의 고졸자 채용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대기업의 임금과 복지정책에 비해 지금의 중소기업은 국가의 여러 지원혜택을 받는다 해도 경쟁력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학력차별 철폐 외에 계획하고 있는 공생발전 안이 있는지.

2012년부터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을 강화하려 한다. 올해는 외국어 교육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인력공단의 도움을 받아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인사파트 교육담당 분야의 교육도 강화했다. 또한 직무특성과 적성에 따른 차별적 육성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실 이렇게 개인의 역량이 향상되면 퇴직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건희 삼성 회장의 "한 명의 천재가 10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처럼 10명중 1명이 남아 우리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다면 교육의 효과는 충분히 높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학력차별 철폐, 고졸채용에 있어 정부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무조건 대학에 진학해야 취업과 성공이 보장된다는 인식을 타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보안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협력사 30곳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

원가절감·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중소기업과 '성과공유제'도 실시

지난 10월 27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1 대한민국 동반성장 성공사례 출판기념회'에서 포스코는 '상생을 통한 공생발전'의 대표적 성공사례 기업으로 발표에 나섰다. 포스코는 윤리경영 및 공정거래 정착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공생발전을, 일자리 확대 및 사회공헌을 통해서는 사회와의 공생발전을 꾀하겠다고 다짐했다.

포스코는 지난 6월 9일 '사랑받는 기업'을 목표로 공생발전을 선언한 이래 전사적 역량을 기울여 기업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책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책임, 삶의 질을 높이는 책임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뛰고 있다. 포스코가 공생발전으로 야심차게 내걸고 있는 '성과공유제'는 공생발전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통해 원가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에 성공하면, 그 수익을 포스코와 해당 중소기업이 공유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도와주는 한편, 포스코 역시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다. 이 때문에 성과공유제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포스코가 중소기업에 지급한 성과공유 보상금은 총 1백76억원으로, 지난해 지원금액인 1백69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중소기업 납품대금 주 2회 현금으로 결제

포스코에 따르면, 협력회사들이 성과공유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올해 성과공유 보상금은 3백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 정준양(鄭俊陽) 회장은 전 그룹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운영회의에서 "성과공유제는 포스코 동반성장의 브랜드이며, 가장 실질적이고 유효한 동반성장 활동"이라며 "성과공유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실시하라"고 독려했다.

포스코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생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보다 앞서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현금결제'가 같은 맥락이다. 포스코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현금결제 방식도 여타 기업과 다르게 운용하고 있다. 즉, 매월 1회가 아닌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현금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 홍보실 이영섭 팀장은 "월 1회 현금결제는 어음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매주 두 차례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제방식이 무엇인지 널리 의견을 수렴한 뒤 주 2회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우수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영섭 팀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제품 생산이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한, 매출액 1천억원이 넘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라며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역량 향상, 해외 판로 개척, 해외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했다.

포스코는 2020년까지 30개 협력사를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영섭 팀장은 "이를 통해 포스코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도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는 지난 4월 27일 포스코센터에서 1~4차 협력기업 9백53개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식을 갖고 건전한 기업생태계 정착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다짐했다. 앞줄 왼쪽부터 2차 협력기업 대표 이수현 청우피앤티 사장,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1차 협력기업대표 나채홍 동주산업 회장.

'제철보국'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

한편 일자리 창출은 포스코의 대표적인 공생발전 노력이다. 정준양 회장은 지난 8월 공생발전 간담회에서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채용규모를 6천6백명까지 늘리고, 고졸사원 채용규모를 현재 42퍼센트에서 앞으로는 5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김상영 홍보실장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공헌"이라며 "매년 채용규모를 꾸준히 늘려 간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포스에코, 포스에코하우징, 포스플레이트, 송도SE 등 4개의 사회적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김상영 실장은 "포스코가 창립부터 경영이념으로 제시해 온 '제철보국(製鐵報國)'과 '인간존중(人間尊重)'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명실상부하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G

글·오동룡 기자

포스코 성과공유제 우수사례

7백55개사 참여… 현금 외 최대 3년 장기계약

2차 협력업체 하나금속을 방문한 정준양 포스코 회장(왼쪽 두번째).

포스코는 2004년 성과공유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래 2011년 8월까지 중소기업 7백55개사가 참여했고, 총 5백78억원을 성과공유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이처럼 포스코의 성과공유 보상금이 대폭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12월 2~3차 협력사도 1차 협력사와 성과공유제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포스코는 중소기업과 공동 개선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는 3년 간 중소기업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물론 최대 3개년까지 장기계약권을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선과제를 위한 시제품 생산비용과 현장적용에 따른 비용 역시 포스코가 부담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범우 열연·냉연 강판을 생산할 때 제품과 설비와의 마찰을 줄여주는 압연유 납품기업이다. 2004년 '포스코 1냉연 압연윤활성 최적화'를 시작으로 포스코와 지속적으로 성과공유제를 추진했다. 범우는 그 과정에서 지난해까지 10건의 성과공유제 과제를 완료했다. 성과도 뛰어나 7건은 연간 13억3천6백만원의 재무효과를, 나머지 3건은 연간 7억~8억원의 재무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작년에는 고품질 압연유를 포스코와 공동 개발해 재무성과 기여분인 6억5천만원을 현금으로 보상받았다. 이는 3년간의 장기계약권까지로도 이어져 범우가 실질적으로 받은 성과 보상금은 20억원에 달한 셈이다.

성암산업 포스코의 외주 파트너사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다. 성암산업은 장비 현대화로 생산원가 절감과 기술 자생력 확보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제철공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분말 운반장비를 기존의 15톤 덤프트럭에서 24톤짜리로 대형화해 1회당 적재능력을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투입되는 인원과 장비가 줄었고, 포스코는 1억9천만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얻었다. 포스코는 그중의 절반인 9천5백만원을 지난 7월 성암산업에 현금으로 보상했다.

삼우에코 고로(용광로)에 미분탄을 뿌리는 장비인 랜스(Lance)를 납품하는 회사다. 랜스는 용광로에 고정돼 있어 항상 고온에 노출되고, 쇳물과 직접 접촉하기도 해 끝이 쉽게 마모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삼우에코는 포스코와 랜스의 수명을 늘리는 과제를 함께 수행했다. 양사는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결국 랜스의 수명을 약 2.5배 늘리는 데 성공했고, 상당 부분의 원가도 절감할 수 있었다. 삼우에코는 공동과제를 수행한 성과 보상금으로 4억7백만원을 받았다.

무료 간병 서비스 하다 '간병사업' 전문화

무료교육 통해 간병전문가로 양성 경제적 자립 도와

'공생'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 유·무료 간병사업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1호' 다솜이재단은 사회적기업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병원 사회사업팀의 권유로 무료 간병서비스를 받게 됐어요. 돌봐줄 가족도 없고 간병인을 고용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간병사님이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의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한 달째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정재영(45·광진구 자양동)씨는 현재 다솜이재단에서 진행하는 무료 간병서비스를 받고 있다. 어려운 형편에 독신인 그는 수술 후 상태가 호전돼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은 완치된 상태가 아니라 간병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씨는 "입원 후 병원비 부담뿐 아니라 간병인 고용 문제로 걱정이 많았는데, 이런 좋은 일 하는 기업도 있다는 걸 알게 돼 한시름 덜었다"며 안도했다.

직원 2백66명 하루 8시간 근무하며 1년 단위 계약

정씨의 간병은 다솜이재단 소속 간병사인 이영옥(48·동대문구 장안동)씨가 도맡고 있다. 이씨는 올 초 지인의 소개로 다솜이재단에서 일하게 됐다. "하루 8시간 근무하며, 1년 단위로 계약해 일하다 보니 전보다 안정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다솜이재단은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무료 간병교육을 실시해 간병전문가로 양성, 이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돕고 있다.

사회적기업 1호인 다솜이재단은 취약계층 무료간병서비스를 시작으로 유료간병사업까지 그 영역을 확장했다. 아울러 공동간병시스템과 간병관리시스템 개발로 간병 사업의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다솜이재단의 직원은 11월 현재 2백66명으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중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87명으로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을 회원제로 운영하는 간병업체와 달리 다솜이재단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간병·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3교대 근무도 실시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퇴직보험에 가입돼 있고 별도의 상해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가입해 간병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솜이재단에서는 동시에 사회서비스의 취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무료 간병서비스도 제공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약 1만5천명이 다솜이재단을 통해 무료 간병서비스를 받았다.

'다솜이재단 간병서비스 사업'은 2004년 함께일하는재단과 실직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과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진행한 교보생명 '교보다솜이간병봉사단'에서 출발했다. IMF를 겪은 후 여성실직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취약계층 여성을 간병인으로 고용해 저소득층 환자에게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사업성과 그 가치를 인정받아 당시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자립지향형 사업에 선정됐다. 2007년 다솜이재단을 창립, 아름다운가게 등 36개 기업과 함께 당시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1호' 인증을 받았다.

유료 '다솜이케어 서비스'로 경제적 자립기반

재단의 경제적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무료 간병서비스 제공사업을 기반으로 2006년부터 유료 공동간병서비스 제공사업 '다솜이케어 서비스'도 시작했다.

정부나 기업의 지원에만 의존하면 지원이 끊길 경우 근로자가 실직하고 사업이 중단되는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재단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었다.

5년째 시행되고 있는 '다솜이케어 서비스'는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19개 병원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솜이재단은 유료사업의 수익은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간병인의 복리후생에 재투자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 밖에 2009년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다솜누리 요양센터를 설립해 치매, 중풍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 돌봄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넓혔다.

> **안재웅 이사장**
>
> ### "사회적기업 1호로 모범적 운영에 책임감"
>
>
>
>
> **'사회적기업 1호'라는 수식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낀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는 배경에도 우리 재단 사업은 모델로서 그 역할을 해왔고, 또 5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도 모범적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만큼의 자부심으로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발전해 나가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 **다솜이재단의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 "재단법인으로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올바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단 경영은 크게 유·무료 간병사업과 요양사업을 그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
> **간병시장에도 혁신을 이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간의 성과가 있다면.**
>
> "우리 재단의 미션은 '양질의 사회서비스와 품위 있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다. 우리 재단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환경의 개선, 간병시장 환경의 개선, 공동간병시스템의 도입, 간병관리시스템 개발 등 사업에 필요한 혁신적인 실험과 도전을 멈추지 않아 왔다. 그 결과 간병시장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 정착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
> **최근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는 현상에 대해.**
>
>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정부와 기업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기업 1호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 **정부 또는 국민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
>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끊임없는 제도 개선 및 지원책의 개발에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지역사회개발과 사회통합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작년 10월에는 한국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가 창조경영, 평생학습,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고 솔선수범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주는 피터드러커 혁신상 사회적기업 부문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5백72개에 이른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다각적인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판로개척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강화에 대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G

글·박근희 기자

"기부 하실래요? N마크 상품 구입하세요!"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캠페인… 총 34개 기업 참여

행복나눔 N캠페인이 기부문화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행복나눔 N캠페인은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2011년 9월까지 총 34개의 기업이 캠페인에 참여했고, 앞으로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복나눔 N캠페인'은 소비자가 N(나눔·Nanum)마크가 붙은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기업이 그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공익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기업의 판매와 소비자의 구매를 연계해 기업에는 사회공헌의 발판을, 소비자에게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착한 소비'와 '착한 기업'을 확산시키는 것이 행복나눔 N캠페인의 궁극적 목표다.

행복나눔 N캠페인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지난해 1월 캠페인이 출범했고, 지난 4월 1차 기금전달식이 열렸다. 1차 기금전달식에서는 대상, 롯데마트, 린나이코리아 등 총 13개사가 기부에 참여했으며, 수혜 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등 총 21곳이었다.

기업에서 기부 대상과 규모 등 직접 정해

행복나눔 N캠페인의 특징은 기업의 제품 생산 전 과정에 소비자를 참여시킨다는 데 있다. 기존 기부는 기업이 제품 생산과 판매를 모두 마치고, 추후에 생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행복나눔 N캠페인의 경우 기업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자를 고려한다. N마크가 들어간 N제품을 따로 생산하고, N제품 출시 기념 행사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일반적인 기부가 기업이 특정 기관에 기금을 의탁하면 끝나는 것과 달리 행복나눔 N캠페인은 기부 기업이 의사 결정의 전 단계에 관여한다. 지원 영역과 지원받을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물론 기부 수준과 규모도 직접 정한다. 또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심사하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의 이정선 대리는 "기업별로 비전을 정해 전략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는 것" 또한 행복나눔 N캠페인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기업은 자사의 비전을 최대한으로 고려해 N제품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에 활용한다.

얼마 전 종영한 SBS의 〈기적의 오디션〉은 우승자 투표 ARS를 N제품으로 만들었다. 시청자가 생방송 중 ARS 투표에 참여하면 저절로 행복나눔 N캠페인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SBS는 ARS 수익금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기로 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성수기 관광상품 수익의 일부를 기부해 다문화가정의 국내 문화재 탐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얼마 전 N마크가 부착된 CJ엔시티의 텀블러를 구매했다고 밝힌 대학생 김우혁(22)씨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며 "행복나눔 N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이 많아져서 다양한 N제품이 출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

글·박소영 기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행복나눔 N캠페인'은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기부문화다. 소비자가 N마크가 붙은 제품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기부에 참여하게 된다. 사진은 행복나눔 N캠페인의 홍보대사인 걸그룹 달샤벳.

롯데관광개발 고길준 팀장
"연속성 있는 기부활동에 고객들 호응 좋아"

언제부터 행복나눔 N캠페인에 참여했나.

"2011년 3월부터 준비에 들어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고객들의 호응이 좋아 목표 액수에 곧 도달할 것 같다."

행복나눔 N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대부분의 캠페인이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단기간에 마무리돼 아쉬웠다.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캠페인을 찾던 중 우리보다 먼저 캠페인에 참여했던 회사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바로 참여하게 됐다."

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달라.

"고객이 여행상품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기부에 참여하게 된다. 쌓인 기부금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한국 정착을 돕는다. 또 '우리 문화재 찾기 기부활동'도 진행 중이다."

행복나눔 N캠페인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한 번은 한 고객분이 '캠페인에 참여하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도 환수해 올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다. 문화재를 환수하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캠페인을 통해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는 데서 더 큰 희망을 보았다."

행복나눔 N캠페인에 참여한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여행상품을 구매할 때 할인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기부에 참여하는 고객들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 직원들도 좋은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긍지가 상당하다."

참여 기업과 지원받은 기관

기업명	기관명	사업명
대상(주)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담장 밖 너머 변함없는 희망
롯데마트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	행복을 향해하는 희망의 돛단배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력 및 역량강화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두빛나래'
린나이코리아(주)	목포시노인복지관	저소득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와이리 행복하노'
(주)보령메디앙스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정 취학 전 자녀교육 지원 사업
(주)쁘레베베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다문화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 지원
	한민족복지재단	다문화아동을 위한 그린나래 캠프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의 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현실적응능력 강화프로그램 '사랑울타리'
삼익가구	한국희귀질환연맹	함께하는 사랑의 릴레이

기업명	기관명	사업명
(주)쌍방울 트라이그룹	발산지역아동센터	나 홀로 아니에요! 놀이와 체험으로 미래의 꿈을 찾아 가꾸어요!
	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작은 두드림으로 큰 행복을
	동여수지역아동센터	트라이~전통놀이체험 1박2일
	경상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쌍쌍이 방문하여 울타리가 되어주자
여원미디어(주)	복흥 다문화의 집	책이랑 엄마랑 행복한 아이!
	월곡 종합사회복지관	多둥이네 多독이
(주)코리아세븐·바이더웨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맘스 러브(Mom's LOVE) 위탁가정 아동에게 사랑 전하기
	편한집	미혼모자가정 아기 건강성장 프로젝트
(주)티니위니코리아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아프리카 모잠비크 중·고등학교 운영 후원사업
(주)LG생명과학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어르신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주)LG생활건강	환경재단	아토피 제로 그린 키즈
롯데슈퍼	전국푸드뱅크 (마포푸드마켓 외 99개소)	저소득가구 생필품 지원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베트남에서 시집온 장태인씨가 남편 김창구씨와 사과농장을 둘러보고 있다. 장씨는 "농촌 일손을 거들 때마다 일을 조금씩 배워 가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 나들이' 꿈 주렁주렁

올해도 22가구 지원… 농어촌 주류가 된 다문화가정 정착에 기여

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다문화(多文化) 가정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농어업인의 소득과 권익 실현을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의 주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도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06년 사과 농사를 짓는 남편 김창구(41)씨를 만나 경북 청송군 부동면으로 시집온 장태인(29)씨. 올해 1월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기까지 베트남 이름 '장티하이엔'으로 살았다. 현재 시어머니를 모시고 3남매를 키우고 사는 그는 청송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주부모임의 대표도 맡고 있다.

장태인씨는 올해 꿈에 그리던 베트남 친정 나들이를 하고 왔다. 장씨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모국지원 방문 가족으로 선정한 22가구에 포함된 것. 장씨는 "5년 만에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베트남 부모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을 잊지 못한다"면서 "농어촌공사의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사업이 더욱 확대된다면 양국 간의 문화적 이질감이 줄어들고,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유창한 우리말 솜씨로 말했다.

서울로 초청, 우리 문화 · 역사 소개 행사도

장씨는 올해 7월 한국어능력시험 중급과정에 합격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고급과정 시험을 준비 중이다. 장씨는 얼마 전 한국방송국이 추최한 '2011 다문화대상'에서 '행복가족상'을 수상하는 등 꿀맛 같은 한국생활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결혼한 농촌 총각 8천5백96명 가운데 41퍼센트인 3천5백25명이 외국인 배우자를 맞았다고 한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국제결혼 추세를 반영한다면, 현재 새로 결혼한 농어업인 다섯 쌍 중 두 쌍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렇게 늘어나는 다문화가정들의 농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연극·영화관람·여행 등 여가활동 지원, 자녀 한글교육 지원, 이주여성 모국방문·부모초청 등 다양한 다문화가정 지원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08년 다문화가정 8가구를 선발해 고향방문 혜택을 준 것을 시작으로, 2009년 13가구, 2010년 18가구에 이어 올해에는 22가구를 지원했다. 현재까지 총 61가구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원을 받아 '친정 나들이'를 한 것이다. 다문화가정 가족들의 모국방문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5천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했다.

복지재단 만들어 농촌 노후주택 수리 맡겨

한국농어촌공사 정인노 홍보팀장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응과 자녀양육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지역 다문화가정 12가구를 초청해 경복궁, 민속박물관, 코엑스 등 서울명소를 돌아보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행사도 갖고 있다"고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노후주택 고쳐 주기, 한국문화 탐방, 한글 및 정보화교육, 한국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정이 다정한 우리의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가운데 농어촌에서 오래 되고, 위험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6가구의 주택을 수리했다고 한다.

노후주택 수리는 다솜둥지복지재단이 맡았다. 초기에는 공사 직원만 참여한 단순한 주거환경 정리에 그쳤지만, 각계각층의 모금과 건축 관련 대학생·지도교수, 지역 건설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등 사업이 확대돼 다솜둥지복지재단으로 탄생한 것이다.

다솜둥지복지재단은 2007년 농어촌공사가 농촌 노후주택 고쳐주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재단으로 출범해 첫해 37가구, 지난해 38가구 등 75가구의 노후된 농촌주택을 수리해 농촌 주민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줬다. 집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솜둥지복지재단 후원회원인 농심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후원금, 그리고 기타 성금으로 충당된다. 올해만 1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박재순 사장은 "다문화가정은 출신 국가와 우리나라를 잇는 민간 외교관이며, 자녀들은 두 개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그 가능성을 위해 공사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G 글·오동룡 기자

박완진 경영지원처장

"다문화가정 돕는 게 농어촌 사회 돕는 길"

농어촌공사가 다문화가정 지원 봉사활동에 나서게 된 계기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은 고령화된 농어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지만, 이로 인해 구성원 간에 편견이나 차별, 언어소통 문제, 문화적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촌공사는 건강한 농어촌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려고 2008년부터 발벗고 나서게 됐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은 어떤 형태로 선발해 지원하나요

"올해 전국 9개 도에서 형편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22가구를 심사를 통해 선발했고, 필리핀·캄보디아 등지의 '친정'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정들은 어떤 어려운 점이 있던가요

"국내엔 아직 이주여성들의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들은 본인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거쳐, 출산후 자녀 육아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엄마가 완벽하지 않은 한국어로 2세를 양육하다 보니 2세들의 언어습득이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성장하면서 이질적인 외모 때문에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많아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던 외국인 배우자들은 정신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향후 다문화가정 지원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주 여성들의 첫번째 어려움인 의사소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어 교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고, 좀 더 한국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행사나 정보교류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다른 다문화가정들과 정보교류를 통해 즐거운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박 처장은 "모국방문 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향방문을 못하는 가정에 대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할 것"이라면서 "외국 부모도 초청해 이주여성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사가 돕겠다"고 했다.

일러스트 · 유재일

어렵게 번 돈 이웃을 위해 베푸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 대한민국이 행복하다

미국에는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등 기부 활동에 적극적인 갑부 2만명으로 구성된 '토크빌소사이어티'란 단체가 있다. 우리 한국에도 이를 벤치마킹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개인 돈을 1억원 이상 실명(實名) 기부한 사람들이 '아너소사이어티'란 모임으로 2008년 출범했다. 이름난 부자들도 아닌 이들은 자신에게 기회를 준 한국 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기부를 결심했고, 막상 내놓고 나니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한다.

상고를 졸업하고 통조림공장에 다니다 그만둔 28세 고졸 청년이 울산 학산동 허름한 가겟방에 '울산산소'라는 간판을 걸고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직함은 '사장님'이지만, 리어카에 산소통을 싣고 시장통과 철공소를 돌며 판매하는 게 일이었다.

자고 나면 도로가 뚫리고 공장이 서던 1961년. 산소통 하나를 팔면 쌀 한 말 값이 손에 들어오고, 다섯 개 팔면 한달 생활비가 해결됐다. 하지만 청년의 꿈은 산소 도매상 잘 꾸려 가는 게 전부가 아니었다.

그에겐 두 가지 꿈이 있었다. 우선 큰 부자가 되고 싶었다. 그는 남들이 말리는 걸 무릅쓰고 일본에 드나들며 독학으로 기술을 익혀 산업용 가스 제조공장을 세웠다. 두 번째 꿈은 기부였다. 성공한 뒤 자신처럼 가진 것 없는 젊은이들에게 학비를 대 주고 싶었다.

가스 도매상으로 출발해 연 매출 1천5백40억원의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를 일군 이덕우(78) 주식회사 덕양 회장은 개인 돈 5억5천만원을 들여 장학재단을 만들고, 매년 회사 순이익의 3~5퍼센트를 보탰다. 지금까지 청소년과 대학생 5백43명이 혜택을 봤다.

삼겹살 · 소주 즐기는 '작은 부자'들

지난 4월에는 울산대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기부하고,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에 가입했다. 부인 장선오(73)씨도 남편과 나란히 1억5천만원을 기부했다. 모금회는 "국내 첫 부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라고 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첫 부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된 이덕우(왼쪽), 장선오씨 부부. 총 2억5천만원을 기부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개인 돈 1억원 이상 기부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2008년 출범 이후 올 9월까지 49명이 가입했다. 1억원을 한꺼번에 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차례 나눠 내는 사람도 있다. 가입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건물 1층에 핸드프린팅 동판을 걸고 회원증을 준다. 정기모임과 봉사활동을 1년에 한 차례씩 하며 다른 혜택은 없다.

국내 한 언론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과 그들의 가족 등 55명을 전수 조사해 지난 9월 26일부터 7차례에 걸쳐 '나누는 사람들'을 보도했다. 단순한 미담 기사가 아니라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돈을 벌었고 지금 왜 기부하며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길 꿈꾸는지 심층 분석한 시리즈였다.

아너소사이어티 창립 이후 회원들이 모금회에 기부한 돈은 총 87억5천5백만원이었다. '부호'라고 할 만한 이는 거의 없었다. 대다수가 중소기업을 꾸리거나 전문직으로 자수성가한 '작은 부자'들이었다. 특전사·해병대·학군단처럼 힘들고 긴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많았다. 특별히 학력이 높지도 않아 40퍼센트가 고졸·중졸 또는 무학(無學)이었다. 점심으로 찌개·국수·백반(41.7퍼센트)을 들고, 술은 소주(34.9퍼센트), 안주는 과일과 삼겹살을 즐겼다.

이들은 "고생해 봐서 어렵게 사는 사람 마음을 안다"고 했고, "없는 사람 불만을 방치하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라가 크니까 나도 큰 것"이라고 했다.

10월에 10명 가입… 다른 10명도 기부절차

자신에게 기회를 준 한국 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기부를 결심했고, 막상 내놓고 나니 너무나 행복하다고 했다. 요컨대 부(富)를 가졌다는 것을 넘어서서, 부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된 사람들이었다.

박성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은 "10월 들어 10명이 아너소사이어티에 새로 가입했고 또 다른 10명이 기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기부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여러 이유로 망설이던 분 가운데 기사를 읽고 기부를 결심한 사람이 많다"고 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맞게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돼 머지않아 1백번째, 1천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나오는 것이 모금회 실무자들의 소망이다.

10월에 새로 가입한 회원들 역시 기존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대단한 부호가 아니었다. 박병출(49) 태현메가텍 대표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끼니를 거를 정도로 어렵게 자랐다. 공고 졸업 후 지게차 임대회사 직원으로 일하며 경남대 기계공학과를 마쳤고, 1989년 기계부품 제조업체를 차렸다.

이덕우 덕양 회장과 마찬가지로, 박 대표의 꿈도 자기 혼자 부자가 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사업이 차차 안정되자 2006년부터 매년 동네 고등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다. 그는 "장학금을 주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더 있을 텐데…' 싶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몰랐는데, 신문 기사를 읽고 '이거다' 싶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15년쯤 더 현역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총 4억원을 기부하는 게 그의 꿈이다.

신규 회원들을 보면, 기부자들의 면면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영돈(59·여행가)씨는 10년째 매년 1천만~2천만원씩 육군3사관학교와 이화여대에 기부금을 내오다 이번에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그는 "아들이 언젠가 '기부 그만하고 우리한테 물려주시지…' 하고 볼멘소리를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때 저는 아들에게 '돈이란 게 3대(代)를 못 간다'고 대답했어요. 언젠가 없어질 돈이라면 살아생전에 의미 있게 쓰고, 자식들에겐 올바른 정신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제 군인연금과 아내(교사) 연금을 합치면 생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꼭 부자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힘 닿는 대로 조금씩 모아 꾸준히 기부할 생각입니다." G 글 · 김수혜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나눔과 공생, 선진국들의 '공통분모'

미국선 기부문화 일상화… 영국 등 유럽은 사회적기업 국가적 지원

선진국의 나눔과 공생 문화는 상당히 강하다. 미국의 경우 GDP 대비 기부액이 우리의 3배를 가볍게 넘는다. 유럽에선 사회적기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긴다.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부의 정책 의지가 어우러진 결과다.

지난해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는 올해의 인물 1위로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과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을 뽑았다. 세계적인 부호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자고 설득한 것이 이유였다. 정부나 국제기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자들이 앞장서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렸다는 평가를 덧붙였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회장은 개인 기부 순위 세계 1, 2위다. 가난한 나라의 질병 퇴치와 보건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은 특히 높게 평가된다. 이들의 기부정신은 기부문화가 생활화된 미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반대로 탄탄한 기부문화가 이들의 '통 큰' 기부를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기빙USA재단과 인디애나대 자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기부액은 2천9백9억 달러(약 3백30조원)로 GDP의 약 2퍼센트에 달했다(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 8.9조원, 0.54퍼센트). 특히 경제위기가 극심했음에도 전년에 비해 3.8퍼센트나 증가했다. 사후 유산기부는 무려 18.8퍼센트나 불어났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상위 기부자와 유산기부의 비중이 높다. 영국과 호주 등 영연방 국가들도 기부문화가 강하다. 2008년 기준 영국과 호주의 GDP 대비 기부금 비중은 0.73퍼센트와 0.69퍼센트였다.

미국은 GDP의 2퍼센트 '통 큰 기부' 많아

영국은 1990년 기프트에이드(Gift Aid)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부문화에 변화가 생겼다. 기프트에이드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2008년 현재 전체 기부자의 40퍼센트가 이 제도를 활용했다. 특히 1백 파운드 이상의 고액 기부자들의 71퍼센트가 기프트에이드 제도를 통해 기부를 하고 있다. 세제혜택이 기부액 증가를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본의 경우도 세제혜택과 기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기부금에서 법인기부 비중은 전체의 78.3퍼센트에 이른다(2006년 기준). 개인기부는 세금혜택이 거의 없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전반적으로도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2006년 기부액이 6천억 엔 정도로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다. 전통적으로 기부를 '돈자랑' 정도로 여기는 문화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사회적기업 6만2천 개·80만명 고용

사회적기업은 사회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국가들이 사회적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탈리아(1991년), 프랑스(2002년), 핀란드(2003년), 영국(2204년), 벨기에(2005년), 폴란드(2006년) 등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 잇달아 사회적기업 육성 법안을 마련했다. 각국의 상황에 따라 방식은 차이가 난다. 이 가운데 사회적기업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영국이다. 사회적기업연합(SEC)에 따르면 2009년 약 6만2천 개의 사회적기업이 80만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영국은 2004년 공동체이익회사법 등 사회적기업 관련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제3섹터청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해 왔다.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시장경쟁력을 중시하는 형태다. 사회적 과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기업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는 모델이다. 전체 매출의 80퍼센트 이상이 영업수익이고 20퍼센트 정도만 정부 지원을 받는다.

국가의 재정지원이 중요한 경우도 있다. 아일랜드처럼 고용을 중시하는 국가가 그렇다. 아일랜드 정부는 장기실업과 노동시장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활용한다. 장기실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지역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사회적기업이 장기적인 생존력을 가질 수 있도록 측면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경영컨설팅과 교육, 교류와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핀란드의 '국립사회적기업지원기구', 벨기에의 '지역창업지원센터', 영국의 '버밍엄 사회적기업협의체' 등은 인큐베이팅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사회적기업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사회적기업 대표자,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대표자, 정부 대표 등으로 구성된 '경제활동을 통한 고용통합 국가위원회'를 통해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영국의 '개발트러스트협회'는 사회적기업과 전문가를 엮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조선DB

미국은 세계에서 기부가 가장 활발한 나라로 기부금이 GDP의 2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사진은 기부 세계 1, 2위인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회장이 중국의 부호들에게 기부를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서 참여를 호소하고 있는 장면.

독일은 중소기업 컨소시엄으로 교섭력 확대

독일은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대기업을 앞지를 정도로 경쟁력이 뛰어나다. 대기업보다 앞서 혁신을 주도하는 것도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을 앞설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나다 보니 대기업과의 거래는 수평적이다. 대기업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교류하고 협력한다. 대기업과 임금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여러 중소기업이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품을 개발하고 대기업과 교섭력도 높일 수 있다. AKKU컨소시엄이 대표적이다.

AKKU컨소시엄은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조직이다. 디자인, 제조, 조립, 포장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각자의 노하우를 모아 자동차 부품 모듈을 생산한다. 거래 대기업은 이를 환영했다. 모듈 상태로 부품을 제공받으니 여러 기업과 거래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졌고, 생산공정도 단축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교섭력이 높아져 장기적인 거래를 확보하게 됐다. 참여기업들은 2년 반 동안 매출이 3배나 뛰었다.

AKKU컨소시엄의 성공이 알려지면서 프랑크푸르트 지역에는 유사한 컨소시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네트워크 경제가 중소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G

글·변형주 기자

"구호에 그치지 않게 주기적 실적평가를"

평가지수를 개발하고 정량평가 · 정성평가 병행해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창안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발할수록 더욱 그렇다. 바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천이 따를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 논리가 좋아도 거기에 치열하고도 끈질긴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상황이 된다. 사람들의 기대감만 잔뜩 높여 놓고 정작 실적이 없다면 속았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공생발전'이란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잘 잡은 개념이다. 요즈음 말로 하면 '착한 정책'인 셈이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이 배가 고픈 '헝그리 사회'였기 때문에 빵 문제를 해결하고 부를 창출하면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헝그리 사회'는 극복했는데, 이번에는 '앵그리 사회'가 되었다.

시장의 경쟁이 공정해야 하는데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고, 또 시장이 매정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화가 나 있는 상태다.

아무리 효율적이며 생산성 높은 선진경제를 만들고 '고용 있는 성장'을 지향해도, 시장의 경쟁에서 탈락해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령자, 아이들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없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며, 또한 이것이 우리 자본주의에 '온정성'과 '따뜻함'이 추가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적 책임 · 나눔 실천하는 자본주의 필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사회의 이미지가 크다. 그러기에 1등만 기억할 뿐 2등은 기억하지 못하는 매정한 사회다. 2등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 3등·4등…, 항차 꼴찌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래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사회"라는 불만도 때때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기에 생산성과 책임감, 경쟁력을 강조하는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되, 경쟁에서 낙오되거나 실패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이며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자본주의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자본주의 경쟁에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행위자들 사이에는 자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비대칭적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흔히 이런 관계를 힘 있는 '갑'과 힘없는 '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이 '을'을 지배하고 강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를 괴롭힌다면, 결코 정의로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고 탐욕과 부정의가 횡행하는 비열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쓴 막스 베버도 진정한 자본주의는 신의 소명의식에 의하여 삶을 가꾸어 가는 사회로서 탐욕이 판치는 '천민자본주의'와는 구분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진정한 자본주의라면 양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을 신봉하기보다 베풂과 배려, 정의를 원칙으로 삼는 사회다.

대기업 · 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중요한 어젠다

21세기 한국형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라면,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한 단계씩 진화해 온 자본주의의 역사가 말해 주는 것처럼 진화한 형태, 즉 온정적이고 따뜻한 모습과 정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옳다.

이런 점에서 한국 자본주의는 비록 '한강의 기적'을 만든 자본주의였으나, 한편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성격과 특징을 가진 자본주의였는지에 대한 치열한 반성이 필요하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잘못된 것은 무엇이며 고칠 것은 무엇인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한국 자본주의는 시장의 행위자들에게 공정을 보장하고 품위 있는 거래를 보장하는 자본주의였는가. 혹시 "실패한 사람은 자신의 책임"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횡포와 억압을 정당화한 자본주의는 아니었는가.

진화된 한국의 자본주의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관계를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중소 협력업체들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시장침탈 등 여러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거나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진화된 한국의 자본주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 9월 경인아라뱃길 갑문공사 현장에서 SK건설 관계자들이 하청업체인 효동개발 직원과 함께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면, 중소 협력업체들이 끝없는 경영난의 굴레에서 허덕인다면, 그 결과 전 업종에 걸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지속가능성을 가진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 중소기업들이 건강해야 장기적으로 대기업도 성장을 계속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정부도 '자기평가' 주기적으로 내놓아야

또한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기업들도 수많은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기도 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 정착이야말로 진화된 한국형 자본주의의 중요한 '어젠다(agenda)'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공생발전이란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특효약이다. 정부도 그걸 알고 있기에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정부가 과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구호로만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언론홍보용으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실사구시적인 방법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 또한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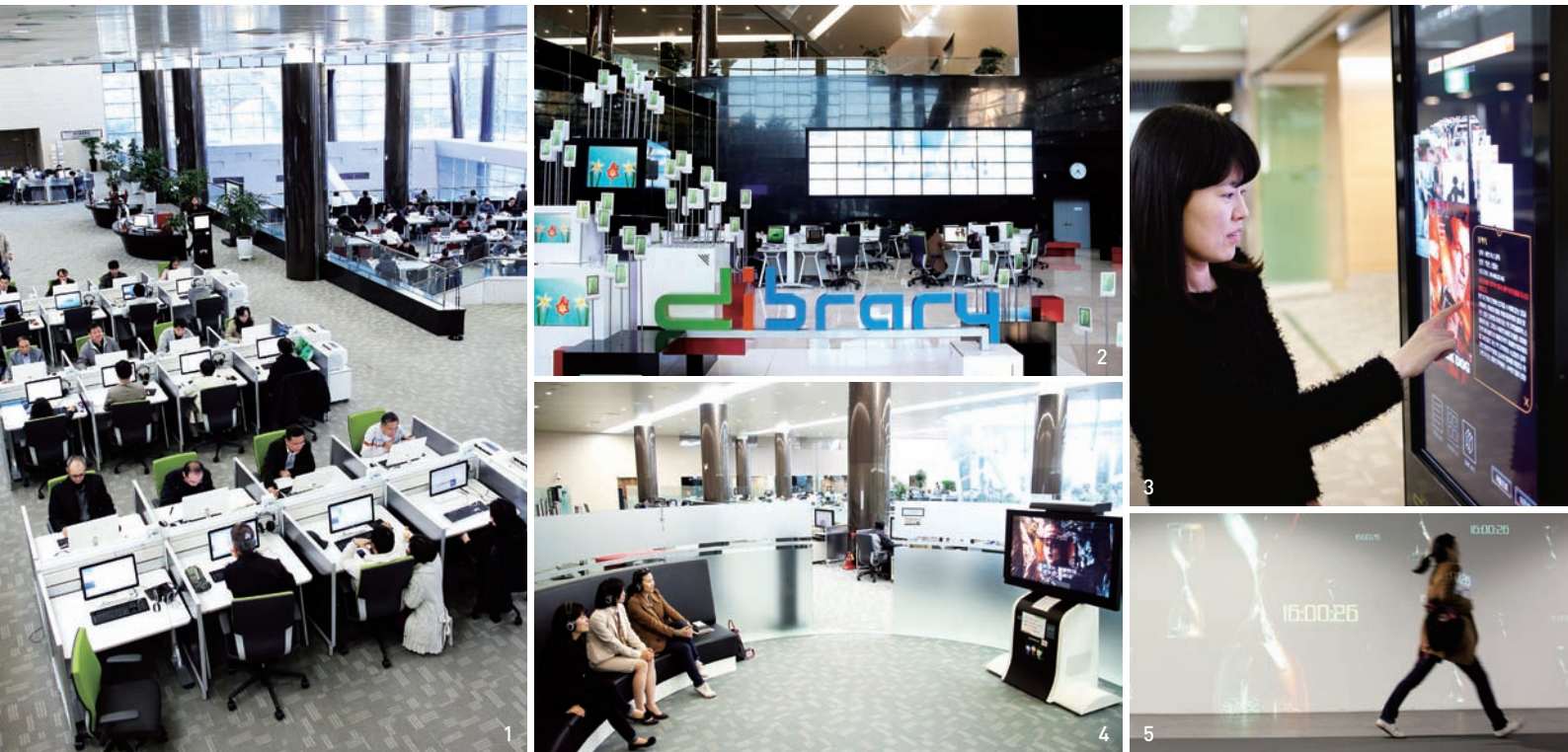
평가지수를 개발해야 하고 여기에는 정량평가뿐 아니라 정성평가도 병행해야 한다. 언론의 조명을 받을 때만 반짝하고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져 동력만 떨어지다가 사라져 버리는 하루살이 정책이어서는 곤란하다.

사람들이 큰소리로 말은 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도 이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주기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공생발전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과감하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정부일 때, 비로소 그의 공생발전 정책은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G

글 ·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책만 읽는 도서관? 디지털 옷을 입다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통해 콘텐츠 생산·상영·전시기능 더해

지난 10월 15일 국립중앙도서관이 개관 66주년을 맞았다.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지식의 보고(寶庫)로 자리 잡은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도서관까지 더해져 정보 홍수 시대의 나침반이 되고 있다.

1 2백52석 규모의 디지털열람실. **2** 열린 공간으로 이용증 없이도 이용 가능한 지하3층 디브러리 입구. **3** 모든 안내판은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도서관 이용에 대한 안내와 미디어 및 디지털콘텐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4** 여럿이 함께 영화 감상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상영관. **5** 미디어아트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식의 길'.

UCC 단편영화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는 영화동호인 나공감(가명)씨. 오늘은 동호회 회원들과 단편영화 제작을 위해 모이기로 한 날이다. 약속 장소는 국립중앙도서관 내 디지털도서관인 '디브러리'. 입구에 들어서니 먼저 온 회원들이 기다리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회원인 나공감씨는 키오스크(Kiosk, 공공장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단말기)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터치해 자신의 예약 사항을 확인하고 카드 인식 후 일행과 함께 입장한다.

나씨 일행은 우선 복합상영관으로 갔다. 52인치 LCD 터치화면을 통해 이날 보기로 한 영화를 클릭, 초고속 다운로드한 후 일행은 안락한 의자에 앉아 헤드폰을 나눠 착용했다. 영화를 감상한 뒤엔 세미나실로 가 영화 감상평을 나누고 스토리보드를 작성했다.

UCC 스튜디오·복합상영관 등 영역 넓혀

나공감씨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이날 감상한 영화 속 한 장면을 토대로 UCC 영상물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일행은 UCC 스튜디오로 가 간단한 장비 사용법을 익힌 후 스마트폰을 활용해 짤막한 영상물을 제작했다. 뒤풀이는 분위기 좋은 '북카페'에서 차 한 잔으로 대신했다.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디브러리(dibrary: digital+library의 약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디지털도서관이다. 전자책 검색이나 원문보기 서비스뿐 아니라 세미나실과 영상스튜디오 등을 갖춰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도서관 그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다. 디브러리는 보존서고, 업무시설 포함 지하 5층, 지상 3층 규모로 꾸며져 있다. 이 중 일반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공간은 정보광장인 지하 1~3층이다.

정보광장은 크게 열람공간, 제작공간, 전시공간, 열린공간으로 나뉜다. 열람공간은 디지털도서관 소장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2백52석이 마련돼 있다. 이용자들은 컴퓨터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와 귀중본, 유일본, 보존본의 검색과 원문보기를 할 수 있다.

미디어자료이용실에서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9만 점의 DVD를 비롯해 인터넷상의 오디오 자료 등을 이용해 볼 수 있다. 영화 감상이나 강연 시청뿐 아니라 비디오 편집 방송본, 공연실황 녹화 자료 등도 컴퓨터를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미디어아트 체험 등 전시공간엔 다양한 볼거리

복합상영관은 홈시어터나 극장 부럽지 않은 공간이다. 52인치 터치스크린 방식의 LCD모니터와 헤드폰이 준비돼 있다. 외국인 이용객들을 위한 다국어정보실, 맞춤형TV시청실 등도 마련돼 있다.

디브러리의 '야심'이 담긴 또 하나의 공간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는 제작공간이다. UCC 스튜디오에선 이용자가 캠코더를 빌려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다. 크로마키(Chromakey, 화상 합성 특수기술) 편집 장비도 갖춰 전문적인 편집도 가능하다. "캠코더나 크로마키 편집 장비를 다룰 줄 몰라도 간단한 사용법 교육 후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게 이옥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이용과 사서의 설명이다.

고가의 영상 및 음향 제작 관련 장비를 갖춘 영상스튜디오와 음향스튜디오도 있다. 방송국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수준이다.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콘텐츠들은 미디어편집실에서 편집이 가능하다.

디브러리 내 볼거리도 빼놓을 수 없다. 국립중앙도서관 1층과 디지털도서관을 잇는 연결 통로 '지식의 길' 벽에서는 미디어아트 체험을 해 볼 수 있다.

벽에 그려진 아날로그시계와 디지털시계가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이동하는 식이다. 미디어센터 내 벽면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예술작품이 펼쳐진다. 이용자 제작 UCC도 감상해 볼 수 있다. 이 밖에 센서를 통해 이용자를 인식해 반응하는 '지식의 뜰', 32개 대형 멀티스크린을 통해 미디어 아트 및 이용자 제작 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는 '광 예술판' 등이 마련돼 있다.

지하 3층은 열린 공간으로, 도서관 이용증이 없어도 이용이 가능하다. 디지털신문대와 'U-터치테이블' 등이 있다. 한편, 11월 15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국제회의장에서는 '열두 서고, 열리다'전이 열릴 예정이다. G

글·박근희 기자 / 사진·장은주 기자

우진영 국립중앙도서관장

"다양한 지식체험 할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

요즘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이용률은.

"디지털도서관은 하루 평균 1천명이, 국립중앙도서관 본관은 평균 1천7백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디지털도서관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

"콘텐츠를 확장해 주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도서관에선 희귀본 등을 디지털 콘텐츠화해 컴퓨터 열람이 가능해졌다. 정보의 공급뿐 아니라 정보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스튜디오나 세미나실 등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디지털도서관이 콘텐츠 생산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도서관의 경쟁력은 역시 책과 콘텐츠라고 생각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 도서관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책들을 수집, 보존하고 있다. 8백20만 장서를 소장하고 있고 그중 40만권을 디지털콘텐츠화시켰다. 전자책 3만여 권과 1백31만 시청각자료, 1억개 이상의 디지털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09년 디지털도서관을 개관해 본격적인 '하이브리드 도서관 시대'를 열었다."

'디지털북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디지털북 시대란 '전자책 시대, 종이책이 없어지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을 의미하는 이른바 '디지로그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정보를 요구하는 수백 페이지의 책을 검색하는 기능은 디지털북이, 깊이 있는 독서는 종이책이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나가야 할 방향은.

"모든 도서관의 롤모델이 되는 도서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서뿐 아니라 다양한 지식 체험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이용객이 감동받고 감동을 통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한국의 情 새록새록

'코리아 홍보' 나선 국내외 거주 외국인 파워블로거 7명 문화체험 여행

내 장점을 내가 늘어놓으면 자기자랑이지만, 남이 해 주면 객관적 평가가 된다. 한국이 좋아 블로그와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외국인 블로거 7명이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한류와 전통문화, 자연경관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사는 폴 매튜스(34·영국)씨는 동네에서 '폴 아저씨'로 통한다. 올해로 한국생활 12년째. 유창한 한국말로 "비 오는 날이면 막걸리에 파전 생각이 난다"는 매튜스씨는 한국 사람 다 됐다. 그는 한국의 매력으로 '정'을 꼽는다.

"정은 정의하기 어렵지만 일종의 커뮤니티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의 시골에 가면 처음 보는 사람도 남으로 대하지 않아요. 진심을 보여줘요. 서울이나 대전 같은 대도시도 멋지지만 시골마을에서는 정을 느낄 수 있어요." 매튜스씨는 해외문화홍보원이 올 2월 개설한 공식 영문 블로그인 '코리아 블로그(blog.korea.net)'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블로거 가운데 한 명이다.

해외문화홍보원, 글로벌 기자단 초청 및 한국문화 연수

해외문화홍보원은 매튜스씨를 포함한 7명의 외국인을 선정해 지난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글로벌기자단 초청 및 한국문화 연수'를 진행했다. 현재 '코리아 블로그'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블로거는 모두 42명(16개국 출신, 국내 활동가 21명·해외 활동가 21명). 이들 중 우수 블로거로 선정된 7명은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한류와 전통문화, 자연경관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외국인 블로거 알렉산드라 드마리아 씨가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등재를 위해 온라인 투표를 한 뒤 발송 받은 감사 메시지를 '인증'하고 있다.

교사, 대학생, 언론인, 예술인, 전문직 종사자 등 다채로운 직업과 국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블로거들은 '돈 한 푼 안 받고' 한국에 대한 애정만으로 활동한다. 대가 없는 자원봉사는 '입소문'을 내는 데 특히 효과적이다. 인터넷 쇼핑몰의 구매후기 게시판을 보면, 소위 '알바'가 쓴 상품평은 어딘지 모르게 티가 난다. 반면, 정말 상품이나 서비스에 감동한 소비자가 올린 상품평은 다른 소비자의 구매욕을 이끌어 낸다.

자원봉사 블로거들이 지난 10월 초까지 자신들의 개인 블로그에 올린 한국 관련 게시물은 3백70여 개. 트위터 등을 통해 그때그때 올린 글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다.

외국인 블로거 운영 첫해임을 감안하면 일단 활동 면에서 합격점을 넘었다는 게 해외홍보문화원의 평가다. 이번 연수는 이처럼 '알아서 잘하는' 블로거들을 격려하고 더 나은 한국문화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 참가자 중 유일하게 해외에서 초청받아 입국한 블로거는 앤 콜(29·영국)씨다. 어려서 태권도를 배우며 한국에 대한 동경을 하게 된 콜씨는 3년 전 한국에서 영어교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해 강원도 춘천에서 영어교사로 1년 동안 재직했다.

계약기간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간 콜씨는 한국이 그리워 런던에서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은 자료로 '김치 소울(Kimchi Soul)'이라는 블로그를 만들어 한국을 알렸다. 런던 주재 한국문화원에서는 콜씨의 공로를 인정해 글로벌 기자단 지원과정에 추천장을 써 주었다.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등재 지원사격

한국 체류 당시 춘천에만 머물렀던 콜씨에게 서울은 미지의 도시였다. 영어교사 재직 당시 휴가 동안 제주도만 잠시 다녀왔기에 서울의 볼거리들을 제대로 감상해 볼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 6일간의 연수 중 서울에서 시작된 이틀간의 일정은 사실상 콜씨를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외국인 블로거들이 방송 프로그램 녹화 현장을 찾아 입장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한국 청소년들과 함께 K팝을 응원하고 있다. 왼쪽부터 알렉산드라 드마리아, 정소연(갈색 선글라스), 폴 매튜스(뒷줄 왼쪽 남성), 아지프 콰드리(뒷줄 가운데 남성), 엘레오노라 이브라기모바(뒷줄 안경쓴 여성), 앤 콜(맨 오른쪽).

"북악스카이웨이에 가 봤어요.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 맞죠?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보였어요. 큰 시가지와 산이 있는 서울은 정말 멋진(cool) 도시예요."

연수 3~4일째 진행된 제주 탐방에는 나머지 블로거 6명이 합류했다. 참가자 전원이 제주도를 한 번 이상 방문했기 때문에 잘 알려진 코스보다는 평소 가 보기 힘든 산굼부리, 우도 체험이 포함됐다. 외국인 블로거의 입소문을 통해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등재 추진을 지원사격하는 의미도 있었다.

제주탐방을 마친 여행전문 블로거 아시프 콰드리(39·캐나다)씨의 입에서 찬사가 쏟아졌다. "제주도에 여러 번 가 봤지만 이번에는 예전에 가 보지 못한 곳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산굼부리도 좋았고 우도 체험도 좋았습니다. 세계 35개국을 여행해 봤는데, 좋은 산과 바다는 많지만 제주도처럼 하나의 섬에 모두 모인 곳은 없어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등재될 만한 것 같아요."

10월 23일 제주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이들은 'SBS 생방송 인기가요'를 관람했다. K팝 팬들도 공개방송 관람은 쉽지 않은 일이어서 이들에게는 더욱 귀중한 체험이 됐다. 솔직히 K팝에 비호감이었다는 한 블로거는 "소녀팬들이 왜 소리 지르는지 알겠다. 현장에서 직접 보니 대단하더라"며 호감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했다.

"온라인만으로 알던 것들을 직접 보니 유익"

이들은 공개방송 관람을 마친 뒤 한강변을 찾아 자전거를 타며 서울의 가을정취를 만끽했다. 다음날 귀국하는 콜씨를 제외하고는 이날 일정이 마지막이었다. 강변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해산한 이들은 "온라인만으로 알던 것들을 직접 보게 돼 유익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다짐을 남겼다.

해외문화홍보원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문으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코리아넷(korea.net)이 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에게 좀 더 부담 없이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블로그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매년 글로벌기자단을 선발해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G

글과 사진·남창희 객원기자

문의 대한민국 정부 대표 영문 웹사이트 http://korea.net
THE KOREA BLOG http://blog.korea.net
FACEBOOK http://www.facebook.com/KoreaClickers

4년 만에 역사 소재 소설 〈흑산〉 내놓은 소설가 김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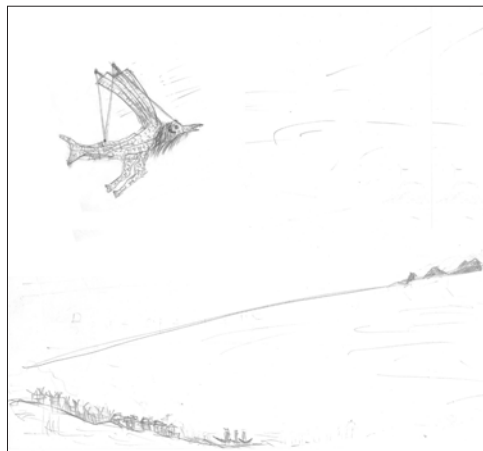
“黑山은 다윈의 새가 가야 할 시공 너머 섬”

소설가 김훈(63)이 〈남한산성〉을 넘어 4년 만에 역사 소재 소설 〈흑산〉을 내놓았다. 김훈은 출간일인 지난 10월 20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2시간 동안 찰스 다윈(Darwin·1809~1882)의 〈종의 기원〉을 1백쪽 가량 읽었다. “모든 생명체는 변화를 거부하는 종족을 도태시키고 사멸시키면서 진화의 수억만 년을 건너가는 것이다”라는 문장을 수첩에 옮겨 적었다. 그리고 집을 나섰다.

조선DB

20일은 작가의 새 장편소설 〈흑산〉(黑山·학고재 출간)의 출간일. 천주교 박해의 절정이었던 19세기의 전반부 50년이 시간적 배경이다. 신앙에 매혹됐다 배교(背敎)한 뒤 흑산도에 유배 갔던 정약전을 중심으로 그 시대를 산 지식인과 백성들이 겪은 풍상(風霜)이다.

기자간담회에서 작가는 질문을 받기 전 10분 동안 모두(冒頭) 발언을 했다. 수첩에 적어 온 내용을 돋보기 쓰고 줄줄 읽은, 2백자 원고지 10장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다윈·진화·순교자·배교자였고, 발언의 핵심은 인간의 진화와 자연의 진화가 마지막에 만나는 지점을 그려 내고 싶다는 불가능한 꿈에 관한 이야기였다. 도덕과 정의를 꿈꾸는 인간과,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적자생존하는 자연의 진화.

그는 다산 정약용 4형제의 기막힌 잔혹사를 예로 들었다. 가부장으로 집안만을 지킨 장남 약현(이복 맏형), 천주교를 믿었다가 배교한 둘째 약전, 순교한 셋째 약종, 그리고 남들까지 밀고해 살아남은 막내 약용. 작가는 “마치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의 형제의 집구석 같지 않으냐”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김훈은 〈흑산〉의 속표지 그림을 직접 그렸다. 연필로 10분 동안 그린 이 새의 이름은 ‘가고가리’다.

먼저, 왜 정약전이었나.

“이 소설에는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많은 배교자가 나온다. 배교의 최정상에는 정다산(정약용)이 있다. 그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배교를 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천주교 동료와 교인을 밀고했고, 아마도 그 대가로 목숨을 부지해서 엄청난 학문적 저작을 남겼으며, 자손만대 추앙을 받고 있다. 그의 선택이었다.

반면 정약전은 세례를 받았다가 배교한 뒤 흑산도로 귀양을 갔다. 그곳에는 단 한 권의 책도 없고, 언어와 문자도 없고, 언어를 교환할 사람도 없다. 그 섬에서 약전은 물고기를 들여다보다가 죽었다. 〈자산어보(玆山魚譜)〉 하나를 남겼지. 한없는 답답함과 슬픔을 느꼈다. 소설에는 그 슬픔이 군데군데 배어 있다.”

정약전과 다윈이라니.

“자유·영혼·인간의 불멸, 그런 목표를 향해 목숨을 바친 사람도 있고, 다 버리고 현세로 돌아온 사람도 있다. 약전은 현세로 돌아온 사람이다. 다윈이 말한 진화와 변화에는 인간의 자유나 이성, 도덕은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야말로 살기 위한 거대한 자연의 질서다. 이들이 마지막에 만날 수 있을까.

소설을 끝냈을 때 (학고재 출판사의) 손철주 주간이 속표지 그림을 그려 오라는 가혹한 주문을 했다. 문득 수억만 년 시공을 날아가는 새가 떠올랐다. 진화의 끝을 향해 날아가는 다윈의 새. 정약용과 정약전은 수많은 글과 편지를 남겼는데, 자기 형제의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다. 침묵으로 묻어 버린 고통들. 배교자와 순교자가 모여 수억만 년을 날아가는, 진화의 끝을 향해 날아가는 새 같다는 생각을 했다.”

역사소설이라는 표현을 거부했다. 이 소설이 현대에 가지는 의미는.

“인간의 시대는 정약전의 시대이건 지금이건 다 똑같다. 기본적으로 약육강식이다. 어떤 사람들은 시대의 해결책으로 공정거래를 얘기하는데, 공정거래가 완성된다고 약육강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공정한 약육강식’이 있을 뿐이다. 시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인간의 딜레마다. 당대의 일을 대답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흑산〉의 시작은 무엇에서 비롯되었나.

“흑산은 다윈의 새가 가야 할 수억만 년 시공 너머의 섬이다. 우리나라 섬 중에서 소설 제목이 될 섬은 ‘흑산’ 밖에 없지 않을까. 완(도), 연평(도), 울릉(도), 좀 이미지가 안 맞잖아(웃음). 15년 전 일산으로 이사온 뒤 자유로를 타고 한강을 따라 서울에 드나들었다.

옛 양화진 자리에 강물을 향해 불쑥 튀어나온 봉우리가 있는데, 누에 대가리 같다고 해서 이름이 잠두봉(蠶頭峰)이었다. 이 봉우리에서 천주교 신자들을 사학(邪學)의 무리라고 해서 1만명 넘게 죽였다.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았다. 무의미한 흙덩어리에서 빚어진 죽음. 나는 즉물적인 사람이다. 책을 읽어서는 생각이 잘 안나고, 이런 걸 봐야 생각이 난다.”

그래도 책은 당신 삶인데.

“내가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건 추호도 자랑이 아니다. 내 친구 중에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놈들이 있다. 그런데 나보다 인격도 고매하고, 세상도 더 잘산다. 〈흑산〉은 무수히 많은 자료가 도움이 되었다.

그중에는 〈정감록〉이 가장 큰 몫을 했다. 놀라운 판타지의 세계다. 하나 더. 〈흑산〉의 주인공은 정약전이 아니다. 형식적 주인공은 그일지 모르지만, 무수히 많은 백성과 지식인이 등장한다. 〈흑산〉에는 주인공이 없다.”

어쩌면 〈칼의 노래〉에서부터 〈흑산〉에 이르기까지 주인공은 사실상 모두 김훈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누구는 ‘동어반복’이라 비판하고, 누구는 그래서 좋다고 한다.

“나는 1인칭에 대해 과도한 집착이 있다. 3인칭이 무섭다. 내가 아니라 그를 어떻게 알고 쓸 수 있겠는가. 3인칭을 온전히 쓰는 작가는 매우 드물다. ‘동어반복’이란 비판은 나로서도 괴롭다. 그 말이 나오면 우리말의 비극을 말할 수밖에 없다. 국어사전을 찾아봐라. 1백퍼센트 동어반복이다. 가령 노란색은 사전에 개나리꽃 빛깔이라 나와 있다. 결국 거대한 동어반복의 시스템. 언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 비극이다. 비단 나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자라면 극복해야 할 숙제겠지.” G

글·어수웅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흑산〉은

〈남한산성〉 이후 김훈의 4년 만의 장편 역사소설. 지난 4월 경기도에 있는 선감도라는 섬에 들어가 칩거 5개월 만에 2백자 원고지 1천1백35장 분량으로 완성했다. 1801년 신유박해부터 1886년 병인양요까지 조선사회 전통과 충돌한 천주교를 중심으로 정약전 황사영 등 지식인의 내면 풍경과 민초들의 참상을 담았다. 순교자와 배교자는 그 단어 자체에 옳고 그름, 선과 악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만, 김훈의 〈흑산〉에서는 그렇지 않다. 배교한 뒤 평생 물고기만 들여다보고 살았던 정약전과, 천주교도들을 어떻게 잡아들여야 할지까지 밀고했던 정약용, 그리고 구름 위의 이데올로기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황사영까지, 모두 부분의 진실이 있다. 자신을 누구의 삶과 겹쳐 놓을지 여부는 독자의 이데올로기와 세계관에 달려 있다.

가수 출신 연기자 지현우는 현재 드라마와 영화, 음악까지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현우는 11월 12일 첫 방송될 KBS 〈청춘불패 시즌2〉에서 리얼 버라이어티 MC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여심 흔드는 '연하남' 엔테테이너 지현우

연기·노래·예능… "못하는 게 뭐니?"

연기에 노래에 예능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맹활약하고 있는 스타가 있다. 바로 지현우다. 지현우는 현재 MBC 드라마 〈천 번의 입맞춤〉에 출연 중이며, 얼마 전 예능 MC로도 신고식을 치렀다. 그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Mr.아이돌〉은 11월 초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얼마전 지현우가 케이블의 한 프로그램에서 부른 노래 '본능적으로'는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낳았다. 지현우는 지금 데뷔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

지현우는 요즘 가장 바쁜 연예인 중 하나다. 지현우가 주인공으로 출연 중인 MBC 주말드라마 〈천 번의 입맞춤〉이 전개상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영화 〈Mr.아이돌〉은 11월 3일 개봉을 앞둔 상황이라 홍보에도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 지현우는 '걸그룹 농촌 체험기'로 화제를 낳았던 KBS 2TV 〈청춘불패 시즌2〉에도 MC로 발탁됐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것은 지금의 그를 두고 하는 말인 듯하다.

음악하는 집안서 자란 '뮤직 키즈'

이런 빠듯한 스케줄 속에서도 지현우는 팬들을 위한 깜짝 서비스를 준비해 두고 있다. 바로 11월 말 발표하는 생애 첫 솔로 앨범이다. 이번 앨범에는 총 세 곡이 수록될 예정인데, 그중 한 곡에는 배우 최강희가 작사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최강희는 SBS 드라마 〈달콤한 나의 도시〉에서 지현우와 연상연하 커플로 호흡을 맞췄다.

연기와 노래를 병행하는 연예인은 많지만, 양쪽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지현우는 영화와 드라마, 노래와 예능을 넘나들고 있다.

지현우가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룹 '더 넛츠'로 활동하면서부터다. 더 넛츠는 2004년 7월 1집 정규앨범 〈더 넛츠〉를 발표했고, 지현우는 그룹 내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해 왔다. 그의 형 지현수는 그룹 '넥스트'의 키보드리스트이며, 아버지 역시 음악가였다.

지현우가 유명 기타리스트가 되길 바랐던 아버지는 어린 현우에게 일찍부터 기타와 키보드를 가르쳤다고 한다. 지현우는 "당시엔 내키지 않았지만, 커 가면서 음악에 애정을 갖게 됐다"고 했다.

어릴 적부터 강도 높은 트레이닝을 받은 탓인지 그는 기타뿐 아니라 뛰어난 보컬 실력도 자랑한다. 지난 7월 지현우가 tvN의 뮤직 버라이어티 〈쇼쇼쇼〉에서 부른 '본능적으로'는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며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본능적으로'는 원래 가수 겸 작곡가 윤종신의 곡으로, 이 노래는 〈슈퍼스타K 시즌2〉에서 강승윤이 부르며 '강승윤 버전'으로 재탄생한 곡이다. 지현우는 직접 기타를 연주하며 이 곡을 완벽하게 소화해 냈고, 노래를 들은 윤종신은 지현우를 극찬하며 "나만 안 부르면 이 노래가 뜬다"고 말해 좌중을 폭소케 했다.

'올드미스…'로 '국민연하남' 애칭

11월 3일 개봉하는 영화 〈Mr. 아이돌〉은 사고뭉치 생계형 그룹이 국민아이돌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김수로가 엔테테인먼트 업계의 일인자인 '사희문'으로, 박예진이 프로듀서 '오구주'로 출연한다. 극중 지현우는 그룹 '미스터 칠드런'의 멤버로, 노래에 살고 노래에 죽는 리더 '유진' 역을 맡았다. 영화에서 지현우는 지금껏 공개하지 않았던 춤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시사회가 끝난 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지현우는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춤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 크랭크인 이후에는 틈날 때마다 각종 음악 프로그램을 돌려보며 아이돌 가수의 무대를 모니터링했다.

11월 3일 개봉하는 영화 〈Mr.아이돌〉의 언론시사회 현장. 영화에서 지현우는 아이돌 그룹의 리더 '유진' 역을 맡아 숨겨둔 춤 실력을 마음껏 뽐낸다.

'미스터 칠드런'의 멤버 중 한 명으로 출연한 가수 박재범은 "지현우는 모든 춤을 부드럽게 소화하는 재주를 가졌다"며 "지현우가 춤추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마치 발레를 하는 발레리노를 보는 것 같다"고 칭찬했다.

지현우는 2003년 KBS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이전에도 조연으로 연기를 경험한 적은 있었지만 공식적인 연기자 전향은 이때였다. 그리고 1년 뒤 KBS 2TV에서 방영됐던 〈올드미스 다이어리〉는 지현우를 스타의 반열에 올려놓는다.

리얼 버라이어티 MC로 첫 녹화 마쳐

〈올드미스 다이어리〉에서 지현우는 노처녀 예지원과 러브라인을 형성하는 연하남 '지PD'로 출연하며 연상녀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고, 2008년 〈달콤한 나의 도시〉에서도 연하남으로 열연했다. 지현우를 국민연하남으로 만든 〈올드미스 다이어리〉는 이후 극장판으로 제작됐고, 정이현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달콤한 나의 도시〉는 방영 이후 소설 판매량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

지현우는 얼마전 KBS 2TV 〈청춘불패 시즌2〉 첫 녹화를 마쳤다. 리얼 버라이어티 MC로서 공식적인 도전을 시작한 셈이다. 지현우는 "본업을 위해서 잠깐의 외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만능 엔테테이너 지현우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다.

글·박소영 기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스크린셀러' 돌풍

〈도가니〉 〈완득이〉 〈마당을 나온 암탉〉 등 영화가 뜨니 원작도 다시 뜬다

〈마당을 나온 암탉〉 〈도가니〉 〈완득이〉…. 최근 인기를 끈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원작소설을 영화화했다는 것이다.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영화들이 올 가을 극장가를 강타하고 있다. 이처럼 영화가 소위 '대박'을 내자 원작소설이 덩달아 인기를 누리고 있다. 바야흐로 서점가는 스크린셀러 열풍이다.

지난 9월 개봉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도가니〉를 비롯해 〈완득이〉 〈마당을 나온 암탉〉 〈세 얼간이〉 〈헬프〉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관객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영화들이 많아지자 영화계는 물론 출판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눈치다. 영화에 대한 관심이 원작도서 구매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와 베스트셀러를 조합한 '스크린셀러'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트와일라잇〉 〈백야행〉 〈슬럼독 밀리어네어〉 〈다빈치코드〉 등은 스크린셀러의 대표적인 예다. 여기에 각종 온라인 도서구매 사이트와 대형 서점을 중심으로 스크린셀러 관련 이벤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독자들의 관심을 끈 것도 스크린셀러 열풍의 요인이다.

누적 관객 2백19만명을 돌파하며 국산 애니메이션 사상 최고의 흥행스코어를 기록한 〈마당을 나온 암탉〉(감독 오성윤)은 황선미 작가의 동명 장편동화를 스크린에 옮긴 것이다.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사계절출판사)은 2002년 출간돼 국내에서만 1백만 부 이상 판매된 밀리언셀러다. 지난 7월 영화 개봉 이후에는 그림책과 원작 동화가 25만 부 이상 더 팔려나가는 등 스크린셀러 돌풍의 핵으로 주목받았다.

영화 개봉과 함께 베스트셀러 재진입 화제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창작과 비평)는 영화 제작이 결정된 후 40만 부 이상이 더 팔려나갔다. 지난 2009년 초판 이래 누적판매량이 80만 부인 점을 감안하면 배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린 셈이다. 공 작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2008년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소설 〈도가니〉를 연재했고, 누적 조회수 1천6백만 건을 기록하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올해 황동혁 감독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진 〈도가니〉는 전 국민을 '분노의 도가니'에 빠지게 했다. 영화가 나오자 당시 사건 재수사 촉구 운동과 함께 가해자와 인화학교 관계자 처벌을 주장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이에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고, 인화학교는 폐교가 결정됐다.

국회 역시 '도가니 방지법'으로 불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소설에서 영화로 이어진 〈도가니〉 열풍이 사회문제를 되돌아보게 할 만큼 거셌던 사례다.

뜨는 영화·드라마의 원작소설 BEST 10 (작가·출판사)

1 〈도가니〉 도가니 (공지영·창작과 비평)
2 〈완득이〉 완득이 (김려령·창작과 비평)
3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 (이정명·밀리언 하우스)
4 〈머니볼〉 머니볼 (마이클 루이스·비즈니스맵)
5 〈마당을 나온 암탉〉 마당을 나온 암탉 (황선미·사계절출판사)
6 〈무사 백동수〉 야뇌 백동수(이재헌, 홍기우·대원 씨아이)
7 〈흉터〉 내 여자의 열매 中 아기 부처 (한강·창작과 비평)
8 〈세 얼간이〉 세 얼간이 (체탄 바갓·북스퀘어)
9 〈헬프〉 헬프 (캐서린 스토킷·문학동네)
10 〈유토피아에서의 7일〉 내 인생을 바꾼 일주일 (데이비드 L 쿡·민음인)

개봉하자마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영화 〈완득이〉(감독 이한)는 김려령 작가의 동명소설이 원작이다. 소설 〈완득이〉(창작과 비평) 역시 지난 10월 20일 영화 개봉과 동시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0위권 내에 재진입했다. 지난 2008년 출간돼 7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소설 〈완득이〉는 연극 무대에도 올려져 11차 앙코르 공연에 돌입할 정도로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완득이〉는 〈도가니〉처럼 사회성 짙은 작품은 아니지만, 교권 추락 시대에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 곱씹게 만드는 영화다. 소심한 반항아 완득이와 그의 곁에서 진정한 인생의 길잡이가 돼준 동주 선생의 이야기를 가슴 따뜻하게 그려내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

〈공주의 남자〉 등 드라마도 스크린셀러 가세

스크린셀러 열풍은 해외 작품도 가리지 않는다. 교육제도에 반기를 든 세 천재의 세상 뒤집기를 그린 인도영화 〈세 얼간이〉(감독 라지쿠마르 히라니)는 인도 작가 체탄 바갓이 쓴 원작소설의 재미와 감동을 바탕으로 한다.

인도영화로는 이례적으로 포털사이트 역대 국내 영화평점 1위를 기록하며 45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서점가에서도 소설 〈세 얼간이〉는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인기에 힘입어 체탄 바갓의 원작소설이 연이어 번역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인셉션〉 이후 3주 연속 전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헬프〉는 11월 3일 국내 개봉한다. 1960년대 인종과 여성 차별이 존재하던 미국 남부 도시를 배경으로, 중상류층 백인의 가사도우미로 살아가는 흑인여성들이 그동안 받아온 차별과 핍박을 책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는 이야기를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캐서린 스토킷의 원작소설 〈헬프〉는 2009년 출간되자마자 미국에서만 3백만 부 이상이 팔려나가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출간 전 무려 60개가 넘는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해져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다.

원작을 뛰어넘는 임팩트가 성공의 관건

여기에 최근 〈공주의 남자〉 〈무사 백동수〉에 이어 〈뿌리 깊은 나무〉 등의 드라마까지 스크린셀러 돌풍에 가세하며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서점가를 강타하고 있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은 스토리가 탄탄하고 독자들로부터 이미 한 차례 검증을 받은 작품이란 점에서 영화로 제작되기 용이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형만 한 아우 없다'라는 말이 있듯 이 소설의 감동을 스크린에 그대로 옮겨내는가, 혹은 원작을 뛰어넘는 임팩트가 있는가가 성공 여부의 관건이다. 원작이 영화흥행을 담보하기보다는 그것을 재가공하는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 배우, 스태프들의 정성스러운 손길과 조화가 더해져야만 스크린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이제는 애초에 영상화를 염두에 두고 쓰이는 소설 작품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원작소설 영화화와 스크린셀러 열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G

글·현화영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기자)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셀틱의 기성용 선수가 지난 9월 30일 UEFA 유로파리그 예선 우디네세와의 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기성용은 팀이 얻은 페널티킥을 전담하게 돼 앞으로 더 많은 골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싸움닭' 변신 기성용 "물이 올랐다"

답답한 경기 흐름 뚫는 '칼 패스'… 한국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바야흐로 기성용(22·셀틱) 시대다. A매치에서,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SPL)에서 기성용은 대표팀과 소속팀을 오가며 역대 한국 축구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물이 올랐다'는 표현이 딱 어울린다.

기성용은 거친 수비로 상대 공격을 중원에서 차단한다. 칼날 같은 패스로 그라운드 구석구석 공을 뿌린다. 방향 전환을 위한 롱패스도 한 치의 오차가 없다. 전담 키커로 세트피스를 책임지면서 강력한 중거리 슈팅도 뽐낸다. 대표팀에서든 소속팀에서든 답답한 경기의 흐름이 기성용을 거쳐 갈 때마다 뻥 뚫린다.

기성용의 거침없는 행보 앞에 '쉼표'란 없다. 지난 10월 7일 폴란드와의 평가전(2대2 무승부), 10월 11일 아랍에미리트(UAE)와의 2014년 브라질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예선 3차전(2대1 승)을 치르고 소속팀에 복귀하자마자 10월 15일 킬마녹전에 나서 공격포인트까지 올렸다.

올 시즌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17경기에서 벌써 5골 5도움. 지난 시즌 34경기 4골 5도움에 맞먹는 폭발적 상승세다. 유럽파 가운데 소속팀에서 붙박이 주전을 꿰찬 선수는 기성용이 유일하다.

유럽파 중 최고 기량… 유일한 붙박이 주전

UAE전에서 기성용은 '패스의 진가'를 선보였다. 이날 기성용은 91퍼센트(89번 시도, 81번 성공)에 달하는 패스 성공률을 보여줬다. 10미터 이상의 중장거리 패스에서도 79번 시도해 무려 75번 성공했다.

신문선 명지대 교수(MBC 해설위원)는 "유럽 선수들에 견줘 결코 뒤지지 않는 신체조건(1미터87·75킬로그램)을 지닌 데다, 킥을 할 때 무게중심을 낮춰 공에 최대한의 힘을 싣는다"며 "이 때문에 정확하면서도 파워 넘치는 킥이 나온다"고 말했다.

올 시즌 기성용의 화두는 '독기'다. 2009년 말 셀틱에 입단해 거칠기로 소문난 스코틀랜드 리그에 어울리지 않는 얌전한 플레이로 벤치 신세를 지는 날이 많았다. 2010년 초 팀내 '파워 태클러' 조사에 꼴찌는 기성용이었다. 당시 닐 레넌 셀틱 감독은 "그딴 식으로 하면 쫓아내겠다. 과감하게 태클을 하라"고 기성용을 윽박질렀다.

정글 같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성용은 '싸움닭'으로 변신을 시도했다. 과감한 태클과 강력한 몸싸움을 서슴지않으며 차츰 스코틀랜드 리그에 녹아들기 시작했다. 스코틀랜드에 입성한 지 1년 10개월. 반쪽자리 수비형 미드필더는 더 이상 없다. 이제 강력한 수비는 트레이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기성용의 성장은 A매치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캡틴' 박지성(31·맨체스터유나이티드)이 대표팀 은퇴를 했고, '쌍용'의 한 축인 이청용(23·볼턴)마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그의 존재감은 더 뚜렷해졌다.

프리미어 리그 러브콜 쇄도… 이적료 5배 껑충

조광래 감독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성용이처럼 공을 차라"고 말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조광래호에서 기성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준희 KBS 해설위원은 "헤딩 능력과 혼전 상황에서 순간적인 볼 처리 능력만 키운다면 기성용은 역대 한국 최고의 미드필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칭찬했다.

성공시대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몸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2009년 FC서울에서 셀틱으로 이적할 당시 그의 몸값은 2백만 파운드(약 37억원)였다.

10월 11일 아랍에미리트와의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에서 기성용이 상대 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기성용은 거칠기로 소문난 스코틀랜드 리그에 적응하면서 수비력이 더욱 단단해졌다.

현재 그의 시장가는 1천만 파운드(약 1백83억원)선으로 무려 8백만 파운드(약 1백46억원)가 껑충 뛰었다. 이적시장에서 러브콜이 쇄도하자 셀틱 구단이 직접 나서 제동을 걸 정도다.

빅리그 진출설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지사. 2014년 1월까지 셀틱과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기성용은 유럽 현지 언론을 통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부터 꾸준히 러브콜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빅4' 가운데 한 팀인 리버풀이 기성용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영국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개인보다 팀, 팀보다 나라' 준비된 국가대표

하지만 기성용은 "현 소속팀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기성용은 지난 10월 12일 소속팀으로 복귀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셀틱에서 더 배우고 싶다. 셀틱이 최근 3년간 우승을 못했다. 이번 시즌 전승을 이루는 게 먼저다. 다른 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심재희 OBS 해설위원은 "다음 시즌 빅리그행은 시간 문제이다. 느긋하게 시간을 갖고 자신에게 최적의 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유럽, 한국, 중동을 오가는 '살인 일정'에도 기성용은 싱글벙글이다. 최근 두 차례 A매치 이후 한국 대표팀은 선수 차출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조광래호 출범 이후 처음 대표팀에 뽑혔으나 2경기에서 겨우 55분의 출전 기회를 얻은 이동국(32·전북 현대)과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19·함부르크)이 논란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기성용은 개인보다 팀이, 팀보다 나라가 우선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기성용은 선수 차출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10월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을 다녀오면 힘들지만 그걸 변명 삼으면 그냥 조기(축구)회 가서 공 차야 된다. 요즘 팀이 이기지 못해 책임감을 느낀다. 다음부터는 준비 더 잘하자"는 글을 올렸다. 아버지 기영옥씨는 "성용이뿐 아니라 나 역시 국가대표로 뛰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젊은 시절 태극마크를 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막 스무 살을 넘긴 태극전사 기성용. 축구선수로서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더 멀다. 이제 막 1막을 열어젖힌 기성용의 성공신화가 앞으로 어떻게 2막, 3막으로 이어질지 더 궁금해지는 이유다. G

글·김연기 (한겨레신문 스포츠부 기자)

조선 후기 배경 사극 스릴러 〈혈의 누〉

닫힌 공간 섬에서 섬뜩한 본능을 보다

2005년 봄에 개봉했던 영화 〈혈의 누〉(감독 김대승)는 19세기 초 역사적 상황을 정교하게 고증하고 지적으로 재해석한 데다 영화적인 재미를 더한 매우 빼어난 사극 스릴러이다. 때는 1808년, 나라에 종이를 공납하고 남은 종이로는 청나라와 무역을 하여 부를 축적한 '가상의 외딴 섬' 동화도에서 기묘한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상인 신분인 객주이면서 섬을 제지 산업지로 성공시킨 강 객주(천호진 분)와 그 식솔이 황사영백서사건(1801년)과 관련되어 참혹한 죽임을 당한 후 7년 만에 그 일가족의 사형방법과 똑같은 끔찍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다.

영화는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육지에서 섬으로 파견된 원규(차승원 분)의 이야기이다. 바다에 대한 공포로 태어나 한 번도 섬을 떠나본 적이 없는 인권(박용우 분)의 슬픈 사랑, 신분갈등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은 두호(지성 분), 그리고 섬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집단이 가지는 폭력성과 공포를 잘 버무려 한 편의 오싹한 미스터리 스릴러를 만들어냈다.

영화 속에서 사건의 배경이 된 것은 '황사영백서사건'이다. 1801년, 천주교 신자 박해사건인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천주교 신자인 황사영은 신앙의 자유를 강구하기 위해 장문의 글을 써서 이를 베이징 주교에게 전하고자 했다. 그러나 청원서를 중국으로 가는 사신 틈에 몰래 끼워 보내려다 나라에 발각되어, 황사영은 능지처참을 당하고 그 관련자들도 참형을 당하게 된다. 영화 속에서는 섬을 발전시킨 공로자인 강 객주가 이 황사영의 경제적 후원자라고 무고를 받아 죽임을 당한 과거에서부터 이야기가 출발한다.

천주교 박해 둘러싼 '황사영백서사건'이 배경

강 객주는 자신이 천주교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섬으로서는 누군가 희생자가 필요했다. 동화도가 제지 산업지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남인계 재상의 도움이 컸는데, 정조가 죽고 순조 초년 강성당파인 노론 벽파가 권력을 잡으면서 동화도에도 위기가 닥친다.

노론 벽파가 정조년간 왕의 총애를 받던 남인들을 천주교와 엮어 탄압하면서 남인계인 섬의 정신적 지주 김치성 대감 또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고, 그런 김치성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희생되어야만 섬은 제지업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주민과 강 객주 간의 채무관계와 탐욕에 가까운 명예욕에 사로잡힌 토포사 이지상(최동준 분)의 참혹한 처벌 등이 강 객주 집안의 비극을 빚어내고 이는 결국 7년 후 기괴한 살인사건의 단초가 된다.

영화는 금난전권 폐지 후 발달한 상업환경 속에서 제지업을 일으켜 국제 무역을 통해 돈을 번 상인계급과 구시대 양반의 신분적인 갈등, 돈 앞에서 의리와 은혜를 배신하고 마는 집단의 이기심 등을 배경으로 깔면서 그 속에 소름끼치도록 절절한 사랑 또한 잘 배치하고 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종이 만드는 제지소가 있는 동화도는 가상의 섬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지 생산지로는 완주(오늘날 전주), 경주, 영변, 순창, 평강 등지가 있지만, 조선 후기에는 전국적으로 한지가 생산되었고, 국가 기관인 조지서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에서도 종이를 만들도록 권장하였다고 한다.

영화 〈혈의 누〉는 외딴 섬에서 벌어지는 연쇄살인과 자기 이익에 눈이 먼 인간들의 본성을 잘 묘사하고 있다.

18세기로 넘어오면서 서적문화가 발달하자 종이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 사장(私匠·나라에서 관리하는 장인이 아닌 일반 장인)이 종이를 만들어 부를 쌓는 일이 많았다. 국제 무역을 하거나 국내 유통망을 쥔 상인이 장인을 들여 일을 시키고 그 생산품을 교역하는 일도 많았는데 영화 속 동화도는 바로 이 상인인 강 객주가 주도하여 제지업을 일으킨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

한지 제지소가 있는 '동화도'는 가상의 섬

우리나라 종이는 한지(韓紙) 혹은 조선종이라고도 하며 닥나무(楮)나 삼지닥나무(三枝楮) 껍질을 원료로 한다. 닥나무를 삶아 껍질을 벗겨 말리고 다시 물에 불려 발로 밟아 하얀 내피(內皮) 부분만 가려내고, 이것에 양잿물을 섞어 3시간 이상 삶아 압축기로 물을 짜낸다. 여기에 닥풀뿌리를 으깨어 짜낸 끈적끈적한 물을 넣고 잘 혼합하여 고루 풀리게 한 다음, 발(簾)로 종이물(紙液)을 걸러서 뜬 것이 우리나라 한지이다.

영화에서는 동화도를 닥나무숲이 울창하여 종이 재료가 풍부한 곳으로 설정하였고 이 숲을 또한 미스터리의 공간으로도 이용하였다. 여기에 조선시대 제지소를 정교하게 복원하여 보는 재미와 함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공포의 공간으로도 만들었다.

한지는 신라시대부터 만들어졌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고려를 거쳐 조선 초기에 이르면 그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알려져 중국의 경우 국가공식문서에는 우리나라 한지만을 고집하였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중국에 사신을 파견할 때 나라에서 보내는 선물품목에도 한지가 반드시 들어갔고 중국의 상인들도 조선에서 꼭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종이였다.

종이가 조선 후기 국제 교역의 주요물품이 되다 보니 종이를 만드는 제지업은 자연히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는 업종이었다. 영화 속 제지소 경영자였던 강 객주는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고 이 부를 바탕으로 조선의 신분질서와는 다른 세상을 폐쇄된 섬이란 공간인 동화도에서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그의 이러한 성공은 구시대 양반질서를 고집하던 김치성 대감과 대립했고 마을사람들의 질투를 받았으며, 아래로는 신분제에 대한 생각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두호의 원한을 사게 된다.

섬 사람들 각자의 이기심 속에서 희생된 강 객주 일가의 원한은 7년 후 연쇄 살인사건이 터지면서 되살아난다. 섬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킨 죄의식에 시달리며 섬은 공포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그 가운데 수사관 원규는 과거사가 자신과 무관하지 않음을 깨닫고 점점 범인을 향해 다가가게 된다.

섬 사람들 각자의 이기심 속에서 희생된 객주 일가의 원한은 7년 후 연쇄 살인사건이 터지면서 되살아난다. 섬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킨 죄의식에 시달리며 공포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그 가운데 수사는 점점 범인을 향해 다가가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범인은 뜻밖의 인물인데…

영화 〈혈의 누〉는 19세기 초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일어난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 신분적 대립과 갈등을 매우 절절하고 지독한 사랑 이야기 속에 잘 녹여내어 영화를 보는 재미와 함께 역사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지성적인 고민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

글 · 김정미 (시나리오 작가)

왕을 얕잡아 본 '왕의 사돈'

환해풍파(宦海風波)라는 말이 있다. 벼슬살이는 큰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 수많은 풍파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런 환해풍파를 온 몸으로 보여준 사례는 실록에 수없이 등장하지만 조선 중종 때의 정치가 김안로(金安老 · 1481~1537)의 벼슬살이를 보면 환해풍파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알게 된다.

그의 출발은 순조로웠다. 그의 아버지 김흔과 작은아버지 김전이 장원급제자였는데 김안로도 1506년(중종1년) 문과에 장원급제를 하고 요직을 두루 거쳐 1524년 이조판서에 오른다. 이때까지는 탄탄대로였다.

그런데 아들 김희가 효혜공주와 결혼해 왕실과 인척관계를 맺은 다음부터 권력을 남용하다가 영의정 남곤 등의 공격을 받고서 유배길에 오른다. 당시의 심정을 김안로는 자신의 문집 〈용천담적기〉에 생생하게 적어 놓았다. 이 글은 유배지에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적은 것이다.

"한 사람이 제창하는 것이 마치 불을 부채질하는 것 같았고 거기에 천 사람의 의심이 바람같이 호응하여 칼을 갈고 물을 끓이는 자가 용맹을 떨치며 나를 급히 밀어 넣으려고 하였다." 억울하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임금께서 밝게 살펴 주시고 당시의 여론이 특별히 용서하여, 요행히 피 묻은 이빨에서 벗어나게 되어 겨우 목숨을 잇게 되었다." 사형을 당할 뻔하다가 유배형으로 감형됐던 것이다.

이때의 일은 김안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던 것 같다. 그 전까지는 사림들과 가까이하고 조광조 일파를 처단했던 남곤 등에 맞서기도 했던 그가 남곤을 능가하는 권간(權奸)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원래 남곤도 조광조와 가까운 사림이었다가 권간으로 돌아선 이력의 소유자다. 1527년 남곤이 죽고 그 세력이 쇠퇴하자 1531년 다시 이조판서로 복직됐고 3년 후에는 우의정을 거쳐 1535년엔 좌의정에 오른다.

과거의 드라마 〈여인천하〉에 악인으로 등장한 김안로는 주로 이때의 모습과 가깝다. 임금을 빼고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세자인 인종(仁宗)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까지 내쫓으려 할 정도의 안하무인으로 권력을 행사했다. 당시 조정의 큰 존경을 받던 명재상 정광필을 죽이려 시도하기도 했다.

일러스트 · 유재일

부친·숙부에 이은 장원급제로 승승장구
공주를 며느리 맞은 후 권력남용 첫 유배
유배 풀리자 안하무인의 공포정치 자행
노회한 왕에게 버림받고 유배지서 사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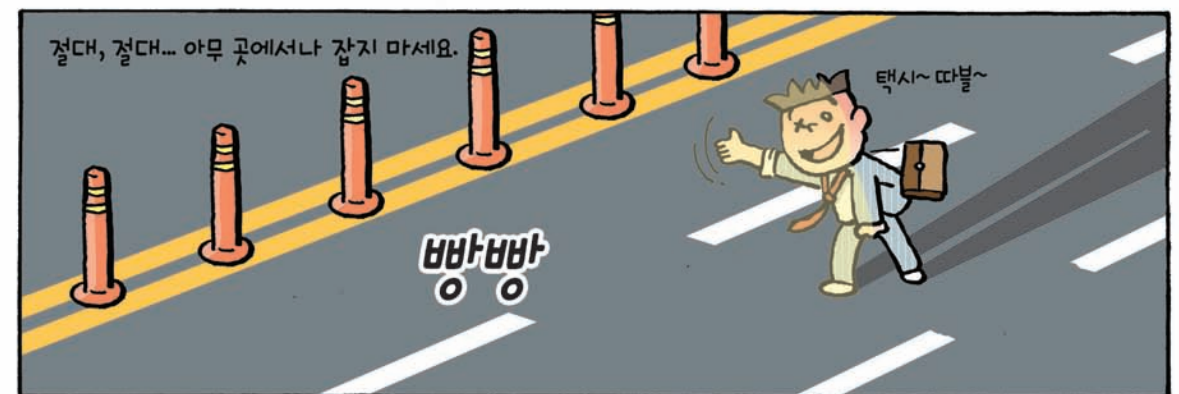
이 무렵 퇴계 이황도 문과에 급제해 막 관리생활을 시작하던 때였다. 김안로는 이황이 동향 사람이라 하여 나름대로 챙겨 주기 위해 불렀으나 이황은 찾아가지 않았다. 권간에게 아부할 수는 없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 바람에 얼마 후 이황이 중앙정치의 권력투쟁에 염증을 내고 고향 근처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지방관리로 나아가려 했지만 김안로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황이 정치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게 된 데는 김안로의 공포정치가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안로는 중종을 얕잡아 보았다. 조광조를 총애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버린 임금이 중종이다. 김안로의 신세도 마찬가지였다. 신하로서 왕비까지 제거하려는 모습에 중종은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김안로를 전격 체포했고, 전라도 진도로 유배하였다가 그곳에서 사약을 내렸다. 공의(公義)가 사라진 세상에서의 환해풍파는 훨씬 거셀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G

글 · 이한우 (조선일보 기획취재부장)

잡지 마세요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마음의 여유는 안전한 내일을 약속합니다.

임플란트 믿고 방치하면… 잇몸 상해요!

하루 3회 칫솔질과 치실로 치태 제거 꼼꼼히 해야

3년 전 어금니 3곳에 임플란트를 한 주부 김모(68·서울 강서구)씨는 1년간 철저히 관리하다가 아무 문제가 없자 2년째부터 치과에 가지 않았다. 그러다 올 초 입냄새가 심해지고 이를 닦을 때 피가 나와 치과에 갔더니, 임플란트 주위염 때문에 어금니 가장 끝 잇몸뼈가 반 이상 녹아 임플란트가 덜렁덜렁한 상태였다. 그는 임플란트를 빼고 새로 심어야 했다.

경희대치과병원 치주과 신승일 교수는 "임플란트가 자연치아보다 더 단단하다 여겨 이식 후 방심하고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구강 전체가 시술 전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티타늄으로 만든 고가의 임플란트는 썩지 않지만, 임플란트 주변은 자연치아보다 취약하다. 원인은 세 가지이다.

첫째, 임플란트 주변에는 혈관이 자연치아보다 적다. 연세대치과병원 보철과 심준성 교수는 "임플란트 주변에는 콜라겐 성분이 들러붙어서 자연치아보다 주변 조직에 혈관이 덜 가므로, 염증이 생길 경우 치유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둘째,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전혀 없다. 자연치아는 염증이 생기면 신경을 통해 시리거나 쑤시는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 임플란트는 잇몸과 임플란트 뿌리까지 세균이 침입해 염증을 일으키기 전까지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심 교수는 "또 임플란트가 흔들려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 치주병을 키우게 된다"며 "특히 염증이 커져 잇몸뼈가 드러나게 되면 임플란트를 세척해도 처음처럼 잇몸뼈에 밀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셋째, 치아를 감싸는 치주인대가 없다. 신승일 교수는 "치주인대는 턱뼈에 치아를 고정시키고, 염증세포를 내보내 염증을 억제한다"며 "임플란트는 치주인대가 없어서 딱딱한 것을 씹을 때 쉽게 동요하는데, 이 틈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이 쉽게 침투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임플란트는 자연치아보다 훨씬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헬스조선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어 문제가 생겨도 환자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염증 질환 임플란트를 한 사람의 50~90퍼센트는 임플란트 주위질환(임플란트 주위점막염·주위염)이 생긴다. 하루 3회 빠뜨리지 않고 칫솔질을 해야 하며, 치간칫솔과 치실을 써서 임플란트 주변에 치태가 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금연도 중요하다. 임플란트 수술 후 흡연하면 잇몸뼈가 임플란트에 제대로 들러붙지 못해 성공률이 20~30퍼센트로 떨어진다. 최소한 임플란트가 자리를 잡는 기간(아랫니 3개월·윗니 6개월)에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치아 동요 임플란트는 치주인대가 없어서 자연치아보다 쉽게 고장나지만, 증상은 늦게 나타난다. 이갈이나 이 악물기, 혀로 이 밀어내기, 딱딱한 음식 섭취 등과 같은 습관이 인공치아를 흔들리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이를 갈면 턱 주위에 평소 음식을 씹을 때보다 5~6배의 힘이 가해져 임플란트 파손이나 잇몸뼈 소실이 생길 수 있다. 에스플란트치과병원 백상현 원장은 "이갈이가 있으면 구강보호장치를 맞춰 착용하고 자면 도움이 된다"며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이 이완돼 인공치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조언한다. G

글·김경원 (헬스조선 기자)

최고의 사윗감

글과 그림 · 최영순

하늘은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은 자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고
스스로 겸양하는 자를 높이 끌어올린다. - <탈무드>

가습과 공기 정화 효과가 있는 스파티필룸, 미니어항, 숯은 '천연가습기'로 통한다.

겨울철 실내를 촉촉히… '숯·어항의 귀환'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원인 가능성" 발표로 천연가습법 다시 주목

"겨울철이면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인데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뉴스를 보고 집안에 가습기 대신 숯을 놓았어요. 가습기만큼 눈에 보이는 가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결 안심이 되네요."

생활 관련 인기블로거인 주부 박윤미(30)씨의 말이다. 가을·겨울철 실내 가습을 위해 가습기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난 8월 말 질병관리본부에서 '원인 미상의 급성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일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후 가습기 및 가습기 살균제·세정제 사용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천연가습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그린 인테리어' 수경식물 재배도 좋아

천연가습의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네 어머니들이 했던 것처럼 방 안에 건조대를 두고 빨래를 촘촘히 널어 두는 것이다. 만약 인테리어 효과까지 고려한 천연가습을 원한다면 숯이나 공기정화 식물, 어항 등을 활용해 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숯은 습도조절에 도움될 뿐 아니라 탈취와 항균효과가 있다. 가습기 대용으로 사용하려면 4~5길로그램의 숯을 먼지를 제거해 잘 씻은 후 햇볕에 하루 정도 말린다. 용기에 물을 반 정도 채우고 말린 숯을 넣어 놓기만 하면 된다.

관엽식물은 가습에 효과적이다. 아레카야자나무나 스파티필룸, 디펜바키아 등은 가습뿐 아니라 공기정화 기능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구입할 땐 1미터 이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습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린 인테리어로 주목받는 수경식물 등을 재배하는 것도 좋다. 수경식물을 유리컵 등에 담아 두면 물이 증발하면서 가습 역할을 하게 된다. 물옥잠, 개구리밥, 수련 등은 물을 제때 잘 갈아주는 것 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진 않아 선호도가 높다.

뚜껑 없는 어항을 놓거나 실내 연못을 만드는 것은 확실하게 가습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자연관찰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어항이나 실내 연못에 수경식물을 함께 기른다면 가습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어항 관리가 염려된다면 화분 크기로 나온 관상용 미니폭포도 활용할 만하다.

이 밖에 겨울철에 자주 먹는 귤이나 사과 등 과일 껍질을 바구니에 담아 실내에 두거나 잠들기 전 분무기를 이용해 커튼 등에 물을 충분히 뿌려도 어느 정도 가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습에 아무리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실내온도 자체가 높으면 건조해질 수밖에 없다. 겨울철 실내온도는 섭씨 20~22도, 실내습도는 40~60퍼센트로 유지하는 게 알맞다. 적어도 하루 두번 이상은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글·박근희 기자

'지구 온난화'의 경고 공익광고로 말한다

국내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25편과 출품작을 선보인다. 우리나라 공익광고 30년 역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전시 **국제공익광고제** 광고는 아이디어다. 공익광고는 여기에 '사회적 메시지'가 더해진다. 올해 열리는 국제공익광고제는 지구 온난화를 주제로 한다. 전시는 공익광고공모전 시상식, 국제 공익광고 세미나 등 각종 광고대전 시상식으로 구성된다. 미국, 일본 등 7개 국가의 주요 공익광고 작품 및 칸, 클리오, 뉴욕페스티벌 등 세계 3대 광고제 수상작품도 전시·상영된다.

일시 11월 6일까지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및 서울광장 **문의** 02-731-7436

축제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짧은 시간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것이 단편영화의 매력이다. 상업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니 독특한 예술성을 선보일 수 있다. 올해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트레일러의 콘셉트는 '상상결핍증 치유'다. 바쁜 일상에 쫓겨 무미건조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선사하는 유쾌한 처방전이다. 현재 TV 광고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 중인 이용진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일시 11월 7일까지 **장소** 광화문 씨네큐브 **문의** 02-783-6518

공연 **황제 그리고 세헤라자데** 이번 연주회는 금난새 지휘자가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후 단독 정기공연으로는 첫번째 서울 공연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연주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와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관현악 모음곡 〈세헤라자데〉다.

정리·김이슬 인턴기자

일시 11월 7일 **장소** 예술의전당 **문의** 032-438-7772

공연	장소	날짜	문의
뮤지컬			
넌가끔 내생각을 하지, 난가끔 딴생각을해	컬쳐스페이스 엔유	11월 13일까지	02-747-2090
바울	대학로 스타시티	11월 15일까지	02-468-6443
식구를 찾아서	충무아트홀	11월 6일까지	02-2278-5741
스트릿 라이프	동숭아트센터	11월 27일까지	1577-3363
연극			
라이어 3탄-튀어	샘터파랑새극장	11월 6일까지	02-747-2070
행복	예술마당	11월 6일까지	070-7613-4527
춘향전	소극장 창덕궁	11월 6일까지	02-741-1535
미남선발대회	창조아트센터	11월 13일까지	02-765-1776
수상한 흥신소	대학로 아티스탄홀	11월 13일까지	1544-1555
콘서트			
리쌍 콘서트	악스코리아	11월 4~6일	1544-1555
김건모 콘서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11월 4~5일	02-542-4145
알렉스 콘서트	연세대학교 대강당	11월 5일	02-511-0380
유리상자 콘서트	대학로 학전블루	11월 6일까지	1544-1555
라쎄 린드 내한공연	상상마당	11월 4일	1544-1555
크로스 보티 내한공연	세종문화회관	11월 6일	02-3461-0976
클래식/오페라			
MIK 앙상블 리사이틀	LG아트센터	11월 5일	02-2658-3546
서울시합창단 113회 특별연주회	세종문화회관	11월 3일	1544-1555
에우로파 갈란테 & 이안 보스트리지	LG아트센터	11월 4일	02-2005-0114
르 트라비아타	금나래아트홀	11월 1~2일	070-7517-6208
무용			
아버지 도산 안창호	예술의전당	11월 4~5일	1544-1555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KBS홀/예술의전당	11월 3~4일	02-781-2241
테이크 아웃	나루아트센터	11월 5일까지	02-584-9039

10월 다섯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10월 16일~10월 22일)

곡명	가수
1 The Boys	소녀시대
2 연애시대 (Feat. Ra.D)	이승기
3 사랑은 Move	시크릿
4 Airbag (Feat. 나얼)	타블로
5 Brown City	투개월
6 정류장	버스커 버스커
7 미인	울랄라세션
8 상하이 로맨스	오렌지캬라멜
9 여기가 아파	백지영
10 Open Arms (Feat. 크리스티나)	울랄라세션

서울 막걸리, 시골 막걸리

전국에서 온 시인(詩人)들에게 내 고향 강원도 토종 막걸리 한 잔씩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술잔을 입술에 대는 순간, 시인들의 표정이 각양각색으로 조금씩 일그러졌습니다. 텁텁하고, 씁쓸하고, 약간은 고린내 나는 누룩 맛과 진한 솔향에 취할 줄 알았는데, 우린 우리도 모르게 맛의 고향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온 듯합니다.

가을이 깊었습니다. 단풍나무 아래 나지막한 평상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나는 백두대간 대관령 깊은 산속, 그야말로 첩첩산중에 사는 시인입니다. 커다란 항아리에 누룩과 솔잎을 켜켜이 넣고 막걸리를 빚는, 백발노인이 있는 마을에 삽니다. 언젠가 그 술 한 동이를 산 적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통에 담기 싫어 내 어머니가 생전에 사용하시던 물동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인생을 유랑하는 나룻배처럼 조롱박 하나 둥둥 띄워서, 무슨 보물단지 싸매듯 칭칭 동여매고 두툼한 이불을 두번 세번 더 둘렀습니다. 그렇게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설악산 만해마을로 기다시피 간 적이 있습니다. 만해 문학축전 행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시인들에게 내 고향 강원도 토종 막걸리 한 잔씩 돌리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수십 명의 시인이 죽 둘러앉았고, 이 술을 빚은 노인과 재료와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였습니다. 모두 술맛을 기대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날보다 손을 높이 들어 인생에 대해 건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잔을 입술에 대는 순간, 시인들의 표정이 각양각색으로 조금씩 일그러졌습니다. 원체 속 깊은 분들이라 크게 내색하진 않았지만, 들었던 잔을 내려놓고 두 번 다시는 입에 대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맥주와 소주와, 시중에서 판매하는 부드러운 맛의 막걸리로 즐겁게 지냈습니다. 술을 가져갔던 나는 그만 머쓱해져서 술이 절반 이상 남은 항아리를 칭칭 동여매고 이불로 둘둘 말아 우리 마을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날, 짭짤한 갓김치를 안주로 노인정에 모여 계시는 마을 어른들께 드렸는데, 이상도 하지? 산골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캬~! 술맛 좋다"라며 구부정한 허리로 일어서서 어깨춤을 둥실둥실 추시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 하얀 노인들이 느리게 춤추는 모습이란, 마치 청산에 하얀 학이 날아가는 걸 보는 듯, 첨가물이 전혀 첨부되지 않은 삶을 보는 듯, 담백하고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언어에 대한 절대 미각을 가진 시인들이라 음식 맛에서도 텁텁하고, 씁쓸하고, 약간은 고린내 나는 누룩 맛과 진한 솔향에 취할 줄 알았는데, 우린 우리도 모르게 맛의 고향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맛 또한 달고 짜고 시고, 때로는 소태같이 쓴맛일 텐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단맛만 지향하게 되었고, 각종 향기를 내는 첨가물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전통음식인 떡도 지나치게 달콤해져 가고 부침개는 기름이 줄줄 흐릅니다.

문득, 인생의 소박하고 담백한 맛이 그리워지는 가을입니다. 달콤한 도시에서 왠지 조금은 씁쓸하게 지내고 있을 것 같은 그대와 막걸리 한 잔 나누고 싶은 그런 가을입니다. 안주는, 단풍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G

글 · 유금옥 (시인 · 강릉 왕산초등학교 사서)